

50년의 노래

안성호(기계 78)

조지아 붉은 흙에 뿌리내린 고대의 혼

오십 년 세월, 거친 바람 이겨내고, 찬란한 피치트리 꽃 피워냈네.

스톤마운틴 바라보며, 뜨거운 가슴 맞대었던 그날

낮선 땅, 외로운 발걸음 함께하며, 끈끈한 정 차타후치 강물 따라 흐르네.

어느새 흰머리 성성한 우리 선배님들, 젊음의 패기 넘치는 후배들

모두 하나 되어, 둘루스에서 외치던 함성 민족의 고대, 애틀랜타에 살아있다!

강산이 다섯 번 변하는 동안, 고대의 금지 가슴에 품고

힘차게 달려온 오십 년, 그 발자취 깊고도 아름답다.

오늘, 벅찬 감동 안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리라

고대의 혼, 영원히 타오르도록 애틀랜타 하늘 아래 빛나리라.

영원하라,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교우회!

차 례

<서시> 50년의 노래

I. 반세기 역사를 맞이 하며

- 민족의 배움터, 고려대학교
- 편찬위원장 기념사
-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축사
- 고려대학교 총장 축사
- 애틀랜타 교우회장 인사
- 애틀랜타 교우회 이사장 치사
- 창립교우 좌담회

II. 50년 발자취

1. 50년 발자취 (요약)
2. 1970년 중반~1995년(개척기)-주요활동
 - 창립교우 부부 탐방
3. 1996년~2010년(정착기)-주요활동
4. 2011년~2023년(성숙기)-주요활동
5. 교우회 회칙 및 재정운용
 - 가. 교우회 회칙운용
 - 나. 교우회 재정운용

III. 우리들의 삶과 예술

1. 동아리 모임 (의대, 간호학과, 산악회, 골프, 사격반, 사진반, 여우회, Emory 대학)
2. 우리들의 시, 글, 그림
3. 부부 고대인
4. 특별회원의 글

IV. 50년을 넘어 미래로

1. 그간의 교우회 활동 평가
2. 교우회 중장기 발전 방향
3. 중장기 실천 방안(신규사업중심)

V. 50년사 기념집 발간과정 및 감사문

1. 50년사 기념집 발간과정
2. 감사문

VI. 부록

1. 애틀랜타 교우회원 인명록
2. 애틀랜타 교우회원 사진록



민족의 배움터, 고려대학교: 역사와 현황

<50년사 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는 1905년 대한제국 시기에 교육 구국의 이념 아래 설립된 보성전문학교를 그 뿌리로 합니다. 당시 내장원경 이용익 선생이 고종 황제의 하사금과 사재를 털어 세운 이 학교는 법률학과 이재학(경영학의 전신) 2개 학과로 시작하여, 격동의 근대사 속에서 민족 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보성전문학교는 재정난과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천도교, 김성수 선생 등 민족 지도자들의 헌신으로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인촌 김성수 선생은 학교를 인수하여 민립대학 육성의 꿈을 펼쳤고, 그 결과 1946년 해방 후 종합대학교로 승격하며 '고려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민족의 양심과 비판적 지성의 상징으로 자리하며, 4.18 의거를 비롯한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학교법인은 우석학원 합병, 세종캠퍼스 건립 등을 통해 규모를 확장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녹지캠퍼스 개발, 의대 안암캠퍼스 이전, 국내 최초 산학연 협력 모델 구축 등 혁신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또한, 첨단 연구 시설 확충, 국제대학원 설립 등을 통해 '과학 고대', '세계 고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캠퍼스는 서울캠퍼스, 세종캠퍼스 및 3개의 부속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현재 20개 대학원, 15개 단과대학, 5개 학부에 학부생 약 27,000명, 대학원생 약 11,000 명, 교원 5,200여 명 규모의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명문 사학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우수한 교수진과 학생,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로 경영대학원(MBA)을 설립하고, 로스쿨을 유치하는 등 선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 각 분야의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는 첨단 과학 기술 연구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뇌 공학, 인공지능, 바이오 메디컬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QS 세계 대학 랭킹에서 2012년 137위에서 시작하여 2023년에는 67위까지 꾸준히 상승하며, 세계적인 학문적 성과와 위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는 삼성, 현대, LG 등 국내 굴지의 기업 CEO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를 배출했으며, 국내외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30만 명 이상의 교우들은 고려대학교의 든든한 자산입니다.

고려대학교는 120여 년의 역사를 통해 쌓아온 전통과 명성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리더를 양성하고,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50년사 편찬위원장 기념사



이광언 (경제 65)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교우회

5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교우회는 지난 50년 동안 낯선 땅에서도 변치 않는 모교사랑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백향목과 같은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끈끈한 정으로 이어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발자취는 한인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고려대학교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 교우회의 발자취와 자화상을 기록으로 남기자라는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주고받아 왔으며 2024년 3월 우리 교우회 이사회는 본기념집의 발간 추진을 결의했습니다. 이어 결성된 애틀랜타교우회 50년사 편찬위원회는 여러 교우님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 응원과 후원 등에 힘입어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훌륭하고 자랑스런 “고려대학교 50년사 기념집”의 탄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자축합니다!

이 기념집은 총 6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고려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고,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교우회를 응원하시는 승명호 고려대학교 교우회장님과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님 등의 축하, 치사, 인사말 등을 실었고,

2부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50여년간 이루어져왔던 우리 교우회의 창립과 정착 및 성숙 과정의 발자취를 살펴보았으며,

3부에서는 우리 교우회가 자랑하는 7개 소그룹-동호인중심 모임의 봉사활동과 야외활동의 즐거움 등을 반추해보았고 또한 우리 교우들의 사색과 여가활동, 작품활동 등을 살펴보았으며 부부고대인 4쌍의 삶도 엿보았습니다.

I.반세기 역사를 맞이하며

그리고 4부에서는 앞으로 우리 애틀랜타 교우회가 추구해야 하는 미래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생각해 보았고,

5부에서는 이 기념집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였고 아울러 이 기념집을 만들기까지 응원과 협조,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교우들과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여러 교우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으며,

6부 부록에서는 애틀랜타 교우회원록과 교우사진록을 싣고 있습니다.

이 기념집은 우리 교우들 모두를 위한 선물입니다.

이 50년사 기념집은 창립교우 등 오랜 교우들께 바치는 “헌사”이며

향후 우리 교우회를 이끌어 나가는 회장, 임원들께 드리는 “교우회 운영 매뉴얼”이고

새로이 교우회 문을 두드리는 교우들께는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교우회 안내서”로 역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의 회장, 임원들은 이 기념집을 “ 우리 교우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나침반”으로 활용 할 것을 기대합니다.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목 – 잣나무 Korean pine (곧은 지조와 절개)

곧은 지조와 절개를 뜻하는 잣나무는 민족의 인재를 키우는 텃밭이 되고자 하는 고려대학교의 의지가 담겨 있다.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축사



승명호 (무역 74)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존경하는 애틀랜타 교우회 광용식 회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200여 애틀랜타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우회장 승명호입니다. 애틀랜타 교우회 50년사 발간을 36만 교우님들과 한마음으로 축하 드립니다. 50주년을 맞는 애틀랜타 교우 여러분의 감격과 자부심이 모교 교정에서도 느껴집니다.

반세기 전 미국 동남부의 중심에서 모교의 깃발 아래 교우회를 처음 만들고, 50년 세월 동안 굳건히 또 살뜰히 이끌어 오신 애틀랜타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비록 대양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 마음의 세계 교우회 지도 위에서는 언제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교우회는 단지 고려대 졸업생들의 모임이 아니라 플로리다와 앨라배마를 아우르는 미주 동남부 지역 사회의 문화를 만들고 공동체에 기여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총장님을 모시고 방문했을 때의 환대와 감사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교에서 비롯된 교우님들의 인연이 시공을 넘어서 깊어지고 향기로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벅차 오르던 자긍심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모교와 교우회는 내년 모교 개교 120주년, 그리고 2027년 교우회 120주년을 맞이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 교우회 120주년을 세계 곳곳의 교우님들과 함께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즈음하여 애틀랜타 교우회 50년사가 발간되는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틀랜타 교우 여러분, 교우회가 애틀랜타 교우님들을 자랑으로 여기듯, 애틀랜타 교우님들께도 모교 교우회가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애틀랜타 50년사를 넘어 100년사를 향해 나아가는 애틀랜타 교우회와 교우님들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고려대학교 총장 축하



김동원 (경영 78)
고려대학교 총장

미국 동남부지역 고대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미국 동남부지역 교우회 50년사 편찬을 고대 구성원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려대학교는 1905년 “널리 인재를 길러 나라를 구한다”라는 건학이념으로 개교하였습니다. 올해로 개교 119주년을 맞이한 고려대학교는 지난 역사를 통해 충실하게 교육 구국의 건학이념을 실현해 왔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의 의지와 희망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였고, 광복 후에는 산업화와 민주화, 세계화에 앞장서며 오늘날의 세계 경제 강국이자 선진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자유·정의·진리의 전당 고려대학교에서 길러낸 뛰어난 인재들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고대정신과 공선사후의 이타적 정신을 발휘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2025년에 고려대학교는 개교 12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고등교육기관인 고려대학교가 이제 개교 120주년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감염병 확산, 사회경제적 양극화,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안고 있으며, 대학이 이 문제들을 연구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문 간 경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계도 넘어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인류의 미래사회에 공헌하는 세계 명문 고려대학교’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가와 학문과 연령의 경계를 넘어 대학 전반의 혁신과 대전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민족의 대학으로서 쌓아온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면서 이제 우리 고려대학교는 세계를 무대로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대학으로 더 높은 위상을 쌓아갈 것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인류 공헌’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새로운 교육이념으로 실현해 나가는 때에 미국 동남부지역 교우님들께서 교우회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고 현재 교우님들의 활약상을 조명하며 교우회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50년사 편찬에 나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50년사는 미 동남부지역 교우님들께서 미국사회에 정착하며 겪었던 삶의 애환과 보람, 희망을 담은 이야기가 수록될 것이며, 무엇보다 영원한 마음의 고향 고려대학교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교우

I.반세기 역사를 맞이하며

회를 발전시키며 고대정신을 발휘해온 이야기를 담아낼 것입니다. 나아가 미래 교우회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미 동남부지역교우회는 조지아, 앨라배마,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미시시피 등 7개 주의 교우님들이 조지아 주의 애틀랜타교우회를 중심으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젊은 교우들과 유학생이 많은 지역 특성에 맞게 교우들의 자발적인 소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골프대회와 야유회, 연세대 동문회와의 고연전을 개최하는 등 선후배 간 따뜻한 우정을 나누며 모교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미 동남부 교우님들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이번 50년사가 미 동남부지역교우회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회 전체의 자랑이자 보람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욱 깊은 모교애와 교우애로 세계 속의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는 고려대학교의 발전상을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50년사 발간을 축하 드리며, 광응식 미 동남부지역교우회 회장님, 이광언 5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 동남부지역 교우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랜타 교우회 회장 인사



곽용식(경영 81)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교우회 회장

동남부 교우회 50년사 편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03년 하와이 이주로 시작한 미국 이민의 역사에서 애틀랜타 지역을 중심으로 50년 전에 고려대 교우들이 모임을 시작했다는 것은 고려대 교우들에게는 물론 한인동포의 미주 이민사에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남부 교우회의 50년사 편찬은 다른 교우회 지부에는 물론 모교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울하던 식민지 시대에 민족의 희망이 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작한 민족 고대가, 이제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고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시기에 글로벌 시대를 미리 살아왔던 미국의 이민자인 교우들의 삶을 나누는 것은 글로벌 고대인의 한 모습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동남부 교우회는 Emory, Georgia Tech, UGA 등 50여명의 유학생들이 동남부 교우회의 주요 행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는데, 이를 통해 후배들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거름이 되고 선배들은 글로벌 인재들의 성장과 활약을 목도하며 인재 양성에 동참하는 교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한 민족과 한 국가가 성숙하기까지는 숭한 시련과 반성, 그리고 성찰의 교훈이 퇴적되어야 한다” 고 했습니다. 시간이라는 자연적 흐름으로 인해 성장하기 보다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을 통해 인류역사는 성장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50년사 발간이 예전의 좋은 시간을 기억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고, 아쉽고 부끄러운 부분도 진솔하게 나누는 장이 되어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생산적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50년사 편찬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시며 광대한 반 백 년의 역사 편찬을 진두 지휘하신 이광언 역사편찬 위원장님과 6개월이 넘는 긴 기간동안 헌신하신 모든 위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애틀랜타 교우회 이사장 치사



김순홍(의학 62)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교우회 이사장

매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미주 동남부 고려대학교 교우회에서 50년사의 책자를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반세기의 발자취를 담은 이 책자를 통해 미주 동남부 교우회의 역사를 돌이켜 보며 앞으로의 성대한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교우들이 함께한 경조사 및 회로애락을 함께 나눈 크고 작은 모임들을 새롭게 떠 올리면서 앞으로 더욱 견고하고 사랑과 호의가 넘치는 교우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방면의 알찬 내용이 실린 이 책이 교우회 한 분 한 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면 우리 교우회원 뿐 만이 아니라 이웃 교민들에게도, 어려운 이민생활에 넘치는 위로와 싱싱한 에너지를 보태 주고 보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유익하고도 재미있는 회고록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미주 동남부 고려대학교 교우회의 50년사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신 편찬위원님들과 뒤에서 많은 후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입실렌티 체이홈 카시코시코시코

칼마시 케시케시 고려대학

칼마시 케시케시 고려대학!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교우회 50주년 기념 좌담회

<50년사 편찬위원회>

1. 간담회 일시 : 2024년 4월 6일 (토요일)
2. 간담회 장소 : 청담
3. 참석자 : 권오승 (정외 55), 한기대 (행정 58), 박병호 (영문 59), 박순 (법학61), 박양삼 (농학 61), 이광언 (경제 65), 박남철 (기계 67), 서봉규 (건축 71), 송경석 (농화 74), 서상희(전기 74), 이혜옥 (간호 74)
4. 진 행 : 임윤용 (사회 79)
5. 기 록 : 안성호 (기계 78), 박의진 (법학 88), 김수영 (영문 96)

권오승 : 1973년 애틀랜타에 정착한후 작은 Grocery를 오픈 하였는데, 이것이 한국인 제1호의 Grocery였습니다. 1970년대 중반 손철영 선배, 지흥구씨 등과 교우회 모임이 태동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979년 식당을 개업한 후에 한기대 교우, 문상호교우의 참여로 본격적인 고대 교우회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1981년도 전두환 시대에 애틀랜타 초대 평통 동남부 회장을 역임하게 되었으며, 81년에는 모교를 방문하여 교우회장으로부터 교우회 표창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립교우: 박순(좌), 권오승(중앙), 한기대(우)

한기대 : 1974년 10월 미국으로 도미하였으며, 시카고에서 애틀랜타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이주 당시에는 정식 교우회가 없었으나, 문상호 박명실 교우 등과 교류를 하였습니다. 이후 교우회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1980년 처음으로 애틀랜타에 교우회가 창설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1980년 교우회 창립 후 매년 망년회, 야유회를 개최하였습

니다. 그 당시 기록을 왕수창 교우가 가지고 있었기에 현재는 해당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980년 이전에는 서로 살기가 바빠서 공식적인 모임은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송경석 : 1980년 전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주재원들이었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에 자리잡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유학생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고연전을 시작했으니, 아마도 1980년대 중반 고연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박순: 나는 1983년 9월에 이곳에 왔습니다. 백순영 선배, 교회장로를 만난 후 한기대선배를 소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선배들이었으며, 1986년 전종석 선배 회장 후 내가 회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망년회는 서울식품에서 했습니다. 1987년 연대와 같이 망년회를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가게를 운영하는 김철홍 선배가 1986년도에 와서 교우회 기틀을 잡았습니다. 1985년부터 계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한달에 한번씩 집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기대 (행정 58)



박남철 (기계 67)

이광언 : 1989년 김철홍 선배께서 교우회 기틀을 잡았다고 하시는 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요?

박남철 : 1988년 4월에 애틀랜타로 오게 되었습니다. 1988년 당시 교우회 회장은 곽경진 회장이었습니다. 1989년부터 교우회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 김철홍 교우가 회장이었고, 내가 총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우회 재정은 적자 재정이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기대 선배가 계모임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계모임은 전교우가 참여하지는 않았고, 원하는 교우들만 참여했습니다. 약 15~17명의 교우가 계원이었고 한달에 1번씩 모였으며, 계모임 하는 당일 낮에는 골프모임을 가졌습니다. \$200씩 교우회에 기부하였습니다. 계모임으로 교우회 재정 문제, 새로운 교우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왕수창 교우의 사고로 계모임을 끝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모교 축제에 맞추어 전 교우를 대상으로 총장배 골프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봄에는 야유회, 가을에는 고연전을 개최하

였습니다.

박순 : 그 당시 연대는 의과대가 있었는데, 우리는 없었습니다. 우석대 교우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나 결국은 실패를 하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짝을 만나기 어려움이 있어서 연대와 연말에 자녀들 짝을 만나게 해주는 파티를 개최하였습니다. 1989년 회장단 선출 시 학번 순으로 회장을 하기로 정하고 총무는 차차기회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자 : 역대 회장단은 어떤 분이 수고하여 주셨는지요?

모두의 기억을 모아서 :

초대 권오승 (정외 55) 이후 이근우 (영문 55), 손철영 (영문 56), 한기대 (행정 58),전종석 (경영 59), 박순 (법학 61), 김철홍 (경제 60), 차수웅 (국문 60), 한성우 (불문 65), 박남철 (기계 67), 박양삼 (농학 61)등이었습니다.

2000년 들어 최영찬 (농학 70), 2001년 김종학 (독문 70), 2002년 김영배 (재료 70), 2003년 이광언 (경제 65), 2004~2005년 서봉규(건축 71), 2006년 서상희 (전기 74), 2007년 이해옥 (간호 74), 2008~2009년 상반기 왕수창 (체육 79), 2009년 하반기와 2010년 이순재 (화학 61)등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교우회장 및 이사장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2011년~2014년 6월 : 초대 교우회장 안성호 (기계 78), 초대 이사장 이광언 (경제 65)

2014년~2016년 : 교우회장 임윤용 (사회 79) / 이사장 박남철 (기계 67)

2017년~2018년 : 교우회장 장마리아 (간호 72) / 이사장 오대기 (화공 67)

2019년~2022년 : 교우회장 홍윤 (경제 81) / 이사장 이기철 (의학 60)

2023년~ 현재 : 교우회장 곽용식 (경영 81) / 이사장 김순홍 (의학 62)

임윤용 : 1980~1990년대 회장단 키멤버를 알아봐 주세요. 제 기억으로는 1980년대까지는 중요 행사만 모임을 갖다가, 박남철 교우가 오면서 1988~1989년부터 교우회 모임이 정례화 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송경석 : 1983년도에 김준엽 총장이 조지아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당시 전두환시절 애기능 뒷산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해 달라고 전두환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10년 후에는 그 자리에 고대 의대가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회자 : 제가 학부 대학원 재학 시 김상엽 총장이 총리로 가시면서 김준엽 총장이 되셨습니다. 그때 그린벨트 해제가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권오승 : 김우중 회장이 조지아에서 자동차를 팔고자 Show를 하였습니다. 그때 고대 연대동문들이 같이 Show 하는 곳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서상희 : 2004년 초에 대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대우가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힐튼호텔에서 Show를 하였습니다. 그때 대우 법인에 있어서 1호 대우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광언 : 고대 행사가 언제부터 정례화가 되었나요? 신년 하례식, 춘계모임, 고연전, 연말모임 등 그리고 교우회 처음 발족하였을 당시 행사는 무엇이었나요?

권오승 : 이근호 교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김준엽 총장에게 역사 수업을 듣고, 그 분이 조지아에 오셔서 함께 여행을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고연전과 같은 정기행사는 없었고 우리 식당에서 망년회를 했습니다. 교기를 그때 선물 받았습니다. 김상엽 총장은 “방법이 불법이면 목적이 좋아도 불법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광언 : 한기대 회장님은 예산 총회 등은 언제 시작하셨는지요?

한기대 : 처음에는 정기모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각자 도생시기이기에 식사 한번씩 하고 헤어졌습니다.

송경석: 한성우 선배가 고대 총장배 골프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자 : 1990년쯤 고연전을 시작했습니다. 배구, 농구, 야구 경기요.

송경석 : 고연전 하기 전에 연대와 야유회를 만들었습니다. 골프는 한성호선배가 1985년 와서 골프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이광언 : 라인댄스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요?

한기대 : 김선생이라는 국제 심판이 장소를 정해서 수업료를 받으면서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송경석: 이규숙 교우가 제안했습니다. 부부동반을 제안했고, 문상호, 손칠영, 한기대 커플이 참여하였습니다.



박순 (법학 61)



박병호 (영문 59)

I.반세기 역사를 맞이하며

창립교우 좌담회

1990년대 말에 시작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박병호 : 이곳으로 2004년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태풍이 와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에 게재 된 교우회 광고를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순 : 교우회 역사를 만든다는 자체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자 : 1차 모임 참석에 모두 감사드립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사안들은 이광언 교우에게 보내주십시오. 교우회 50년 역사는 과거 현재 기록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모든 역사를 정리하여 교우회를 활성화하고 오늘의 후배들이 미래에 더 잘해 주기를 위한 비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우회가 업그레이드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광언 : 제가 드린 종이에 기억나는 부분을 제목 등 적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미 동남부 교우회 50주년 기념 좌담회 : 2024년 4월 2일]

사진 아래줄 좌로부터 박양삼, 박순, 이광언, 권오승, 한기대, 박병호

둘째줄 좌로부터 박남철, 김수영, 박남철(부인), 박병호(부인), 권오승(부인), 한기대(부인), 이광언(부인), 안성호

셋째줄 좌로부터 박의진, 서상희, 송경석, 임윤용

1. 애틀랜타 교우회 50년 요약

<50년사 편찬위원회>

애틀랜타 교우회 50년사는 크게 3개 기간으로 나누어 기술되고 있습니다.

첫째 기간은 1970년대 초부터 1995년까지 교우회를 설립하고 개척한 시기이며

둘째 기간은 1996년부터 2009년까지 교우회의 몸짓을 불리고 내부 기틀을 다진 안정, 정착 시기이며

셋째 기간은 2010년부터 현재(2023년)까지의 시기로 교우회활동이 다각화, 다양화되며 외부활동도 많아진 성숙화 시기입니다.

한인들의 미국이민이 늘어나던 1970년대 우리 교우 중 권오승, 이근우, 한기대, 문상호, 박영길, 지흥구, 백순영, 김선희 교우들도 이곳 애틀랜타에서 미국이민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년에 두세 차례 적을 댄 2~3명 많을 댄 4~5명정도가 교우의 자택이나 공원 등에 모여 서로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그런 모임을 가지곤 했습니다.

1980년 12월 권오승, 이근우, 한기대, 문상호 교우 등이 주축이 되어 “미국 동남부지역 고려대학교 교우회”를 창립하고, 회장에 권오승, 부회장에 이근우, 재정에 문상호, 섭외에 박영길 교우님 등을 선임하고, 교우회 회칙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비로소 조직적, 체계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시기 교우회 모임으로는 신년 하례모임과 송년모임을 빼놓을 수 없으며 봄철에는 스톤마운틴 파크에서 바비큐 야유회도 가졌으며 손철영, 문상호, 한기대 교우들을 중심으로 골프모임도 가졌습니다.

1989년 김철홍 교우회장(박남철 부회장)시기를 전후하여 우리 고려대교우회는 연세대교우와 의기투합하여 고연전(연고전)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989년 김철홍 회장 시절 우리 교우회는 매월 한번씩 만나는 친목계를 조직하여 2009년 상반기까지 거의 20여년간 월례모임을 가져왔습니다. 동 친목계는 일종의 낙찰계형식으로 운영되었는데 통상 당해 월 낙찰을 받은 교우님은 여타 교우님들의 식사대를 부담하며 약 \$200 상당액을 교우회에 후원하는 형태였는데 이로써 교우회 재정이 그간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2009년까지는 전반적으로 교우회 활동이 안정화를 보여준 시기였습니다. 1996년 하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애틀랜타는 급속히 성장하였는데 여기에 더하여 조지아 주 및 인근지역에 현대자동차 생산공장 등 한국계 대기업생산공장들이 들어서면서 한인인구도 늘어나고 우리 교우회의 외형(회원 수)도 빠르게 커졌습니다.

2001년 4월 김중학교우가 회장이던 시기 우리 교우회는 모교교우회의 회칙을 본 따 “고려대학교 교우회 미동남부 지부 회칙”을 개정하여 교우회운영의 원활을 도모하였습니다.

이 시기 우리 교우회는 전 회원 참가대상의 연초의 신년 하례 겸 정기총회모임과 4,5월의 봄 야유회나 체육 모임, 가을의 고연전모임 그리고 연말의 송년모임의 4대 기축 모임을 가졌고, 이외에 2008년 상반기 까지 친목계원을 중심으로 매월 월례모임을 가졌습니다.

2005년 봄, 미주 전지역의 모교 100주년 창립기념행사가 뉴욕에서 열렸는데 우리 애틀랜타교우회도 동참하였고 30여 교우님과 서봉규 회장이 \$10,000의 모교발전기금을 모아 모교에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교우회는 2009년 10월부터 종전의 친목계중심의 월례모임을 중단하고 4대 기축모임과 소그룹의 동아리모임만 갖는 신규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 우리 교우회는 안성호 회장을 비롯한 여러 회장님들의 헌신봉사와 노력에 힘입어 그 어느 때 보다는 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회에서 최장기간인 3년 6개월을 역임한 안성호 회장시절인 2011년부터 우리 교우회는 대내외적으로 내실을 갖춘 모범교우회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내부적으로는 전교우를 대상으로 연중 3회 이상 통화하기 등 회원 수 확대운동과 동아리모임의 활성화노력 및 자금관리의 체계화를 통해 재정안정화를 이루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우회의 위상이 높아져 감에 따라 본교 여러 내빈들의 방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본교 이기수 총장께서 2011년 2월 내방하셨고 김병철 총장께서 2013년 12월, 이명박 전대통령께서 2014년 9월, 염재호 총장님이 2015년 12월 내방하셨습니다.

한편 우리 교우회는 2013년 봄 “미주 모범지부 교우회”로 뽑혔으며 이어 2014년 6월 미주 대표 교우회인 미주 총연 교우회의 4대 교우회로 선정되는 영광을 가져” 미주교우 총연합회 제4차 총회 및 전미주대회”를 Suwanee 에 위치한 Bear’s Best Golf Club에서 치뤘습니다.

2014년~2016년 임윤용 교우 회장시절 의대교우들이 대거 교우회에 합류하여 우리 교우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고 아울러 교우회재정에도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있습니다. 장마리아 회장시절(2017년~2018년12월) 모교에서 시작한 재학생들을 위한 정기 소액기부운동(“KU PRIDE CLUB”)에 동참하여 1만 달러를 모금 전달하였습니다. Pandemic기간 중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회장직을 홍윤 교우가 맡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모이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교우회의 활동도 주요행사는 생략되었으며 경조사의 경우에도 Online 경조가 이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활동이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거의 3년 만에 코로나가 끝난 2023년 광용식 회장 체제로 출발한 교우회는 교우회 회칙을 종전 전문 6장19조에서 전문 7장31조로 전면 개정하였으며, IRS로부터 새로이 501(c)(3)의 비영리단체로 승인을 받아 찬조금, 기부금 등에 대해 세금공제증서를 발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회에서는 처음으로 2023년 12월 총 52쪽 분량의 당해 년도 연감 “가가호호”를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교우회 연보 (1975년 ~ 2024년)

- 1975년: 애틀랜타 지역 고려대학교 교우들 함께 모이기 시작
- 1980년: "미국 동남부 지역 고려대학교 교우회" 공식 발족 (초대 회장: 권오승)
- 1983년: 김준엽 총장 애틀랜타 방문
- 1989년: 낙찰계를 통한 교우회 재정 확보 및 교우모임의 조직화, 체계화
- 1990년~1995년: 고연전 개최 및 졸업생 명부 확인 관행 정착
- 1996년~1999년: 월례 친목계 중심의 교우 모임 활성화
- 2000년: 신년 하례 모임, 정기총회, 춘계 체육대회, 고연전, 연말 송년 모임 등 정기 행사 개최
- 2001년: 교우회 회칙 개정, 회원 구분 세분화 및 이사회 신설
- 2005년: 모교 개교 100주년 기념 발전기금 모금 및 기념행사 참가
- 2009년 하반기: 교우회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노력
- 2010년: 교우회 신규 체제 출범 (4대 기축 행사 중심 운영)
- 2011년: 이기수 총장 애틀랜타 방문
- 2013년: 김병철 총장 애틀랜타 방문
- 2014년 6월: 안성호 교우 미주 교우 총연합회장 선출, 고려대학교 미주교우 총연합회 제4차 총회 개최
- 2014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 애틀랜타 교우회 방문
- 2015년: KU PRIDE CLUB 정기 소액 기부 운동 전개, 염재호 총장 애틀랜타 방문
- 2017년: 염재호 총장 재방문, KU PRIDE CLUB 홍보
- 2020년~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우회 활동 잠정 중단
- 2022년: 팬데믹 이후 교우회 활동 재개
- 2023년: IRS 501(c)(3) 비영리단체 승인, 이사회 및 임원진 구성
- 2024년: 애틀랜타 교우회 50년사 발간, 승명호 교우회장 및 김동원 총장 방문

2. 애틀랜타 교우회 50년사 개척기 (1970년대~1995년)



임윤용 (사회 79)

1. 들어가는 글

일찍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고 설파하셨습니다. 또한 저명한 역사학자인 Edward Carr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 없는 대화”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애틀랜타 고대 교우회의 지난 50여년의 족적에 대한 자료와 기록을 발굴하고 수집하여 정리하며,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책으로 남기고 평가하여 우리 선배들의 애틀랜타 이민생활의 애환과 노력을 되밟아 보며 그 속에서도 도도히 흐르는 “민족 고대인” 으로서, 호랑이의 뜨거운 야성과 차가운 지성의 포효와 발자취를 되돌아 봄으로서 앞으로 50년을 짊어지고 나아갈 “세계속의 고대인” 으로서 우리 후배들이 더욱 일취월장하여 성장발전하기를 학수고대하며 1970년대부터 1995년까지의 우리 교우회 “개척기” 를 기술해 봅니다.

우선 그 당시의 사진과 기록물은 생각보다 아주 적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기록은 현존하는 선배님들의 소량의 기록물과 사진에 더하여 대부분은 간담회와 개인 대화를 통하여 그들의 개인적 혹은 소그룹의 집단적 기억에 의존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글쓰기가 참여했던 2002년 10월에 발행된 “애틀랜타 한인 이민사 편찬위원회” 에 의한 “애틀랜타 한인 이민사” 에 수록된 우리 교우에 관련된 기술이 아주 일부 편린으로 존재하고 있어 그의 조각들을 모으고 우리의 기록과 구술 등과 연결하여 서술할 수 있었습니다.

2. 1970년대 이전

애틀랜타 한인 이민의 역사

애틀랜타 한인의 역사는 1891~1893년 좌옹 윤치호 선생님의 Emory 대학교 유학으로 시작됩니다. 조선 말기에 통리교섭본부 (지금의 외교통상부) 소속으로 근대화의 선각자였던 그는 미국 국무부와 감리교단 선교사의 초청으로 1888년 테네시 내쉬빌의 Vanderbilt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한 후에 1891년부터 2년간 애틀랜타 Emory 대학교 에서 수학한 후 한국으로 돌아가 조선 정부에서 요직과 독립협회의 회장과 독립신문 편집장을 거쳐 외부대신서리를 역임하신 큰 어른이셨음이 이채로우면서도 자랑스롭습니다. 그 이후의 애틀랜타 뿐 아니라 미국 전체에 있어 한인 이민의 역사는 아주 미미합니다.

다만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밭 이민으로 수 백명의 노동자 이민이 시작되고 척박한 상황에서도 곳곳이 일하며 자손을 낳고 본토 서부로 이주하여 성실히 일하며 한인회와 단체와 교회들을 세우고 고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이민은 1880년대 중반 이후 대량으로 철도 교량건설과 광산업 등과 도시 내에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던 중국인들이나 하와이와 서부의 농장 등에서 일 하기 위해 대규모로 왔던 일본인들이나 필리핀인들에 비해선 아주 소수였습니다. 다만 소수의 유학생과 특별 이민자들을 제외하고는 1950년대 한국전쟁이후, 전쟁고아들과 미군과 결혼한 부인들이 남편들을 따라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65년의 이민법 개정으로 이미 정착한 이민자들이 부모나 형제들을 초대할 수 있는 가족이민과 전쟁 전후 급격하게 산업과 도시들이 급성장함에 따라 많은 전문직들과 기술직 노동자들이 폭발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대규모 이민이 허가되면서 한인들의 이주 숫자도 점차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애틀랜타에도 이미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에 소수의 목사 출신 신학대학원들과 유학생들이 Emory와 Georgia Tech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그 중에 잔류한 자와 특별 이민자 등 아주 소수가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 1963년 이후 Emory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총리를 지낸 이흥구와 통일부장관과 부총리를 역임한 한완상 등의 유명인사가 있습니다.

최초의 고려대학교 커넥션은 임희섭 사회학과 교수였으며 추후에 모교 대학원장을 지내셨습니다. 1960년대 중후반엔 이들 유학생들과 그 전부터 타주에서 공부를 마치고 부임한 교수들과 목사들과 의사들의 식자층들이 이민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초창기 이민생활의 애환과 에피소드는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우선 한국음식 재료를 구하지 못해 중국 식료품점에서 양배추와 무 등을 사서 겨우 김치를 담가 먹을 수 있었고, 쌀은 안남미라는 월남쌀을 사서 대신 먹었고, 명절이라도 되면 떡을 워싱턴에서 공항 화물로 받아서 함께 요리하여 먹었다고 하며, 혹시라도 지인이 새로 한국에서 오거나 수화물을 받으면 기혼자인 교수나 형편이 나은 선배들 집에서 함께 기뻐하며 나누었습니다. 김치나 고추장을 한국에서 가져 오거나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등지에서 어렵게 조달하여 먹고, 그 와중에 미국 공항에서 폭발하여 사고를 내는 일이 있어 공항직원들은 그것을 마치 폭발물 다루듯 소동을 피웠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들어선 한국과 타주에서 이주한 한인 숫자들도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되고 사는 지역도 넓어지고 한국음식과 물품들도 조금 더 다양하고 풍성해 지기 시작하였고, 아직 전문 한국마켓이나 식당은 없었기 때문에 동양식품점과 중국이나 일본식당을 찾아야만 하였고 1978년에 “코리아하우스”라는 식당이 열려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서 1968년 1월 3일 개천절에 Decatur YMCA에서 20여명이 참가하여 창립된 한인회는 그후엔 크게 성장하여 연말행사나 다른 행사들을 치렀고, 특히 스톤마운틴에서 야유회를 가져 지역만리 이국 땅에서의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풀며 친목을 다졌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김선희 교우의 활약

고대 출신으로 최초로 이 지역 한인이민사에 공식적으로 이름이 나오는 분은 고 김선희 (의학 58) 교우로 1969년에 애틀랜타에 당도하여 다운타운의 병원에서 연수 받은 후 근무하였습니다.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미국에서는 월남전쟁과 의료개혁 등의 이유로 의사들이 많이 부족하여 외국에서 자격이 되는 의사들을 급히 초청하여 소정의 재교육과 시험을 거쳐 임명할 때로 한국에서도 수 백명의 의사들이 도미하여 대도시의 종합병원 등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 분은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간호사인 신채원씨와 결혼하고 지속적으로 한인사회의 중요한 구심점이 되어 긴밀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사랑방음악회” 등의 친교 문화의 장을 열고 한인 이민자들이 정보를 교환하여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곳에서 최초의 한인교회의 시작에도 일익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0년엔 “한인봉사센터”를 개설하여 교민들이 병원 이용과 그 외 여러 이민과 복지수혜를 받는 것을 도와주는 등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서비스와 분야를 확대하여 정부와 단체 등에서 재정정보를 받아내어, 지금은 한인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민자 들을 돕는 “Center for Pan Asian Community Services”와 “Cosmo Health Center”를 수십 년 운영하다가 2020년 작고하셨고, 아직도 부인께선 이 대규모 비영리 단체를 이끌고 있는 우리 고대 가족의 효시입니다.

3. 1970년대

사회노인학 전문가이자 한인 사회의 구심점 (지흥구 교우)

1970년대에 소수지만 우리 교우회 뿐 아니라 초창기 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중요 멤버들을 살펴 볼 때, 고 지흥구 (사회 63) 교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1971년 부인과 함께 Georgia State University에 유학 와서 앞으로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하여 노령사회가 도래하고 개인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으로 심각한 이슈들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전공을 살려 사회노인학을 공부하였습니다. 한편 그 당시 가난한 모국에서 돈을 가져 올 수 없어서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소규모 실내장식 사업을 시작하여 키우게 되었고 특유의 친화력과 사회성과 영어실력으로 교민들을 규합하여 서로 여러 네트워크로 묶어 “상공회의소” “한인교회” “한인회” “한국학교” 등을 출범시키거나 정착시키는데 핵심 멤버로 활약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침례교회 목사가 되어 “지형석”으로 개명하고 1980년 이후 상존하던 한인 업주들과 흑인 손님 간의 경제적 문화적 인종적 갈등으로 인한 강도 살인과 불매운동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다가 1992년 LA폭동 후, 이 곳에도 닥친 한인가게 약탈사건 등의 크고 작은 한흑 간의 심각한 문제가 대두됐을 때 “한흑친선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민사회 뿐만 아니라, 흑인사회와 주류사회의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주요 단체들과 인물들을 설득시켜 조정하고 해결하는 어려운 사업들을 최전선에 서 리드하는 큰 역할을 감당하신 인물이십니다.

한인들의 경제적 뿌리내림을 돕다 (백순영 교우)

1972년 1월 백순영 (법학 57) 교우가 시카고에서 MBA 취득 후에 국방부에서 일하다가 이 곳으로 이주하여 한인중에 제3호 CPA로 사업을 시작하고 초창기 이민자들이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 의무를 다 하고 미국생활에 본격적으로 경제적 뿌리를 내리고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자문의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40년의 긴 세월 동안 수 많은 이 곳 이민자들이 개인과 회사 차원에서 사업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시다가, 2022년 은퇴 후에 큰 따님이 사는 북 캘리포니아로 이전하셨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한인 사회 리더 (권오승 교우)

우리 교우회 태동과 개척 뿐만 아니라, 전체 한인 커뮤니티와 주요 단체들의 가시적 발전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권오승 (정외 55) 교우는 1972년 먼저 이 곳에 온 파독 간호사 출신 부인 권인옥씨를 따라 1973년에 도미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미국사회의 의료 시스템이 대규모로 팽창 중이어서 훨씬 많은 간호사들이 필요하여 외국 출신들이 입국하였는데, 우리 한인들도 독일에서의 경험자들과 본국에서도 진출하였으며, 약 200명 정도가 이곳 조지아 병원들로 오게 되어 남성 중심의 이민자 사회에 여성 전문인들의 물결이 밀려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온 남편들은 처음에는 영어 문제와 신통한 직업이 없어 육아와 살림 뒷바라지로 부인들과 역할이 역전되어, 비슷한 처지를 만나면 한숨 쉬며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였으나, 점차 한국에서의 다양한 고등교육을 받고 회사와 공무원 등으로 일을 했던 경력을 살려, 이 곳에서 그 안에 진출하지 못했던 분야와 사업에도 도전하고, 선발자의 도움과 주선으로 자리를 잡으며, 수 년 후엔 한인단체와 조직에도 중요한 자원으로 봉사하며 리더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발군의 리더로 권오승 교우는 조지아 주립대 수학과 최기한교수와 정치외교학과 안낙영 교수 등과 교제하며 한국에서 언론사에서 일하던 경험을 살려 한인회 이사로 식품협회 창설자로 연합장로교회 장로로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생업어른 1975년도에 이민자의 선각자로 주요 로컬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그로서리를 시작하고, 다른 많은 한인들이 식품점과 리커 스토어 등의 small business를 제약 없이 좋은 조건에 시작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와 실질적 노하우를 전하는 긴요한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추후 식품협회와 한인회의 중요 리더로 크게 활약하고 이름을 떨치며, 그 간의 막강한 한국과 미주 한인 내 인맥과 실력으로 1981년에 처음 출범한 “평화통일 자문위원회 미 동남부 자문위원회” 초대 회장으로 2년간 봉직하며, 한국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하여 은사였던 모교 총장 출신 김상협 국무총리와 교우인 이범석 외무장관등과 조우하며, 그 위상을 떨치셨다고 하며, 고대 총교우회로부터 모범 지회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받았다고 회고하셨습니다.

통역 장교, 한인사회 사랑방 역할 (한기대 교우)

위의 소수 리더들의 영향으로 한인사회에 아름아름으로 교류가 확대되어 가다가, 차차 서로 고대출신임

을 알고 좋아하고 특별한 애착을 갖고 교류하던 즈음에, 한국에서 통역장교와 국제실업 해외부장을 역임하고 시카고에서 MBA를 취득한 한기대교우 (행정 58)가 1974년 이곳으로 이주하여, 고대 특유의 자신감과 투지로 식품사업의 중소기업화를 모색하고, 한편으론 1977년에 한인최초로 “동원반점”이라는 한국식 중국식당을 열어서 이곳 한인사회의 각광을 받고 사랑방 역할을 하며 각종 모임과 향수를 달래는 중심지로 애용되면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파악된 고대인들의 모임이 더욱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는 추후에 이곳 한인회 이사과 부회장을 거쳐 이사장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대활약하게 됩니다.

대한항공 직항로 개설 책임자에서 한인회장으로 (손철영 교우)

1970년대 중후반이 돼선 본격적으로 이민자들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우리 호랑이들도 점점 숫자를 더하게 되어, 위의 분들 외에도 텍사스에 거주하며 한국과 무역업을 하던 이근우 (영문 55) 교우가 이사 후에 가세하고, 손철영 (영문 56) 교우가 1974년에 이곳 애틀랜타에 대한항공 KAL의 직항로 개설을 위한 책임자로 부인과 일남일녀를 대동하고 이곳에 와서 소임을 하다가, 몇 년 지나 정착하기로 작정하고 모색하던 중에 미주한국일보 지역판에 게재된 권오승선배의 스몰비즈니스의 성공 기사를 보고 영향을 받은 후에, 긴밀히 교제하고 1977년에 다운타운에 상당한 규모의 그로서리를 시작하고 그 후에 역시 한인회 이사, 식품협회 이사 등의 일익을 감당하고 실력과 영향력을 미치다가, 급기야 1992년엔 본교우회 출신으로 유일하게 제20대 “애틀랜타한인회장”으로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고 문상호 동문의 선구적인 사업 성공과 박영길 교우의 안타까운 별세

고 문상호(경영 59)는 이민 후에 그 당시 한인들이 다운타운 근처 흑인 지역에서 소매업을 하는 단계에서 진일보하여 팽창하는 교외 지역의 중상층을 고객으로 하고, 한인들의 성실함과 손재주를 활용하여 안정적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세탁업에 선구자로 종사하여 특유의 사업적 수완과 실력으로 소매업으로 자리를 잡고 자본과 소매망을 연결하여 세탁업 장비사업에도 진출하여 인정을 받게 되었고, 새로 이민 와서 사업을 모색하는 학교 후배들을 포함한 많은 교민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훈련시켜 자리를 잡게 도와 주기도 하였습니다. 고 박영길 (농경 58)도 비즈니스와 교회에서 훌륭한 인품으로 존경을 받았지만, 이 지역 프리웨이에서 불행히 교통사고로 아깝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성장과 고대 교우회의 태동

일찍이 서술한 대로 그 당시 교민들은 초기의 힘겨운 이민생활에 주 6~7일을 부부가 자녀들을 열심히 뒷바라지 하면서도, 오랜 시간동안 공장이나 소규모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American Dream을 성취하기 위해 주야로 일하며 참으로 눈물겹도록 바쁘게 생업에 종사하느라, 정기적으로 여유 있게 휴식하면서 시간을 맞추어 그룹으로 정례화하여 만나기는 쉽지 않아, 불규칙으로 개인적으로 아름아름 만나서 식사하며 교류하며 회포를 풀고 사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구성원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고, 삶이 조금씩 안정을 갖게 되고 여러 모임과 단체들이 보다 다양화하고 조직화됨에 따라, 구체적 목적과 소속감을 견지하며 정기적으로 만날 필요성이 자연스레

대두되고, 각 분야에서 점차 리더들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교우들의 조직화된 만남도 더욱 절실하다는 생각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1976년 11월 27일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달라스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미동남부 5개 주를 담당하게 된 기념으로 전교민들을 총영사관저로 초청하여 성대히 파티를 개최하여, 이 곳의 교인들이 크게 기뻐하며, 교민사회가 훨씬 성장하며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교우 출신이 영사로 부임하여 이곳 교우들을 자연스레 우대하며 우정을 나누게 되어, 고대 출신들이 아주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며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교우들 사이의 자긍심과 유대감이 크게 고취되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합니다. 그 해에 박양삼 교우(농학 61)이 휴스턴에서 컴퓨터 공학 석사를 마치고 이주해 와 박사과정을 하며 교우회에 참여하여 1995년에 교우회장을 맡는 등, 한결같이 50년 가까이 부인과 함께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대들보 같이 버텨 주셨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한인들의 수는 미국 타지역에서 이사 오고 한국에서도 직접 가족이민으로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1971년에 처음으로 초 교파 성격의 애틀랜타한인교회 시작 후 교회가 교파별로 분화하여 7개로 늘어나게 되었고, 1977년에 도라빌에 한인천주교회가 생겨 우리 교우들도 숫자는 많지는 않았어도 고대인 특유의 단체에 잘 적응하고 어울리며, 지성과 인품으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범으로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문들에 파악된 통계에 따르면, 1979~1980년엔 약 비지니스가 200여개로 증가하였고 경로회와 단체들이 생겨나며 한인들의 응집과 성장을 도모하는 중심점이 될 공간확보를 위한 한인회관 건립 위원회 등이 태동하고 증가하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4. 1980년 12월 “미국 동남부지역 고려대학교 교우회” 공식적 발족 (창간 회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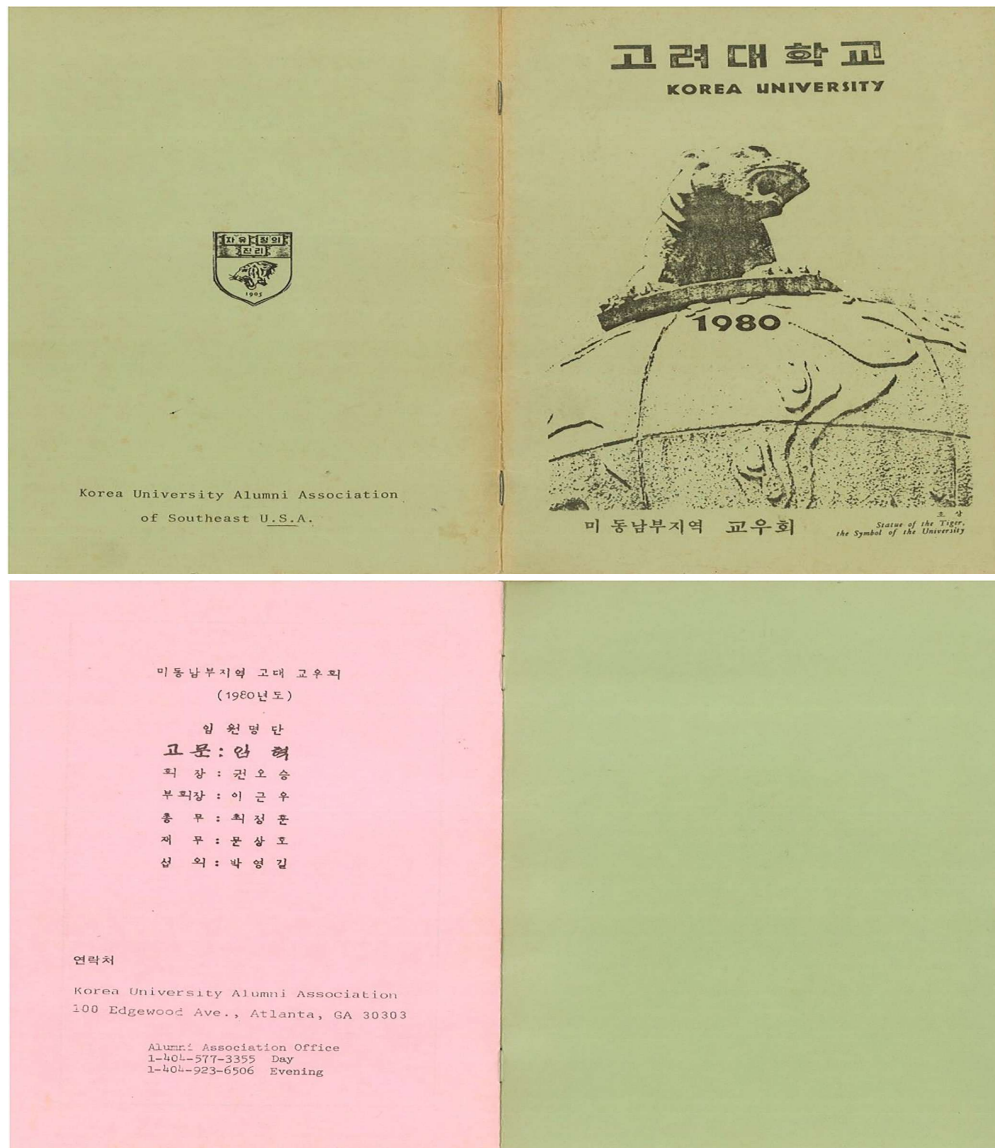
1970년대의 초창기 소수 선배님들의 모교와 교우들의 관심과 교류는 드디어 1980년 12월 헌신과 노력으로 “미국 동남부 지역 고려대학교 교우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창립 시 배부되었던 교우록의 원본에 의하면 회장: 권오승 (정외 55), 부회장: 이근우(영문 55), 총무: 최정훈(경제 69), 재무: 문상호(경영 59), 섭외: 박영길(농학 62), 고문: 임혁(54) 등 임원단으로 구성되었고, 그 들 포함 총 29명이 주소록에 등재되었습니다. 학번은 지금과 다르게 입학년도가 아닌 졸업년도가 전공과 함께 적혀 있는 것이 특이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선 대학 입학자들이 아주 소수였고, 3년의 군복무와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이 아직 충분히 성장 발전하여 안정되기 전으로, 지금같이 순탄하게 4년 만에 졸업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판단됩니다. 부회장인 이근우 선배는 텍사스와 한국에 출장이 잦아 실질적으론 한기대 (행정 58)이 담당하였습니다. 고문인 임혁 선배는 그 당시 가장 연장자로 추대되었다고 하며 의대 출신인 김선희 교우와 백경선 교우도 명단에 올라 있고 홍순자, 이길숙, 심선홍 등 간호대 출신도 세명이나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과 같이 큰 고대가족으로 뭉치고 상호 도와주며 보다 영향력 있는 교우회로 성장하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중 심선홍 교우와 부군인 심중구씨는 동남부 최초로 1988년에 “한미TV”와 1993년에 “Radio Seoul”을

개국하여, 그 당시 적은 한인 커뮤니티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도, 교민 사회를 위해 선구자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뉴스와 교양과 재미를 제공하여 많은 찬사를 받으며 크게 기여한 인물들입니다. 유학생으로 김문조 (사회학 대학원76) 모교 교수가 University of Georgia 대학원 수학 중에 명단에 올랐습니다.

창간 시 발행된 교우록에는 자랑스런 고대 마크, 호상, 고려대 전신 보성전문학교 설립자 이용익 선생과 유진오 총장의 글, 구 교가와 교가, 권오승 초대회장의 머리말, 구 도서관 (대학원 건물), 초대 회칙, 29명의 졸업년도와 전공* 전화번호와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컴퓨터가 발달되지 않았을 시기에 구색을 갖추고 짜임새 있고 고대의 역사와 정신과 자랑과 심벌들을 총망라하여, 국* 영타자와 붓글씨와 사진과

고려대학교 미 동남부 교우회 창간회보 표지(1980년)



그림의 복사를 통해 정성스레 편집하고 만들었던 선배님들의 노고와 완성 후에 배포하며, 뿌듯해 하며 감격하며, 집에서 직접 누룩으로 담아 준비한 막걸리를 흡족하게 건배하며 호탕하게 들이키셨을 모습을 떠올려 보니 가슴이 뭉클하며 눈물이 핑 돌며 40여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5.1980년대

급변하는 애틀랜타와 한인 커뮤니티

1980년대에 이르러 애틀랜타 광역시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빨리 성장하는 sunbelt중에서도 선두로 급속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중공업 중심의 중서부 rustbelt의 쇠락과 북동부의 흑한 등의 이상 기후와 과밀집의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등 동부권 보다는 온화한 기후와 좋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새롭고 매력적인 터전으로 부각됐습니다. 일찍부터 동남부 허브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바나 항구와 멀지 않고, 전국의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와 주간 고속도로의 교차지요, 또한 세계에서 가장 이착륙 비행기와 이용객이 많은 국제공항 등의 기간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었고, 시내에 Emory, Georgia Tech, University of Georgia, Georgia State, 명문 흑인 대학교 등의 우수한 대학교가 위치하고, 주정부와 시정부와 Center for Disease Control등 연방정부 주요기관들과 동남부 지역본부 등이 위치하고 있어, 강력한 산학정 공동체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에 있던 Coca Cola, Delta Air Lines, CNN, Southern Company등과 새로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최고의 세제, 인력, 토지 등의 혜택을 주어, Home Depot, UPS와 보험 투자 은행과 컴퓨터 IT회사들이 이전해 오거나 성장 발전합니다. 이런 경제적 정치적 발전에 1960년대 이후 미국의 대표적 흑인사회의 중심으로 Martin Luther King 목사 등이 주도한 Civil Rights Movement와 주요 개신교단의 총본산으로 사회문화적 변화의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며 급속도로 대변혁을 이루어 가며 그 동력으로 마침내 1996년도 “애틀랜타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이 곳 한인 커뮤니티도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인회, 한국학교, 교계, 정치사회경제단체, 동창회, 향우회 등이 태동 혹은 정착하기 시작하고 서양 음식점, 가발점, 무역업, 의류상, 세탁업 등과 태권도장, 여행업, 부동산, 보험, 세무, 한국식당, 수리점, 치과, 병원과 미국인 상대 뿐 아니라 늘어나는 한인 상대의 새로운 가게들이 우후죽순으로 발달하여 교민사회의 양적 질적 공간적 재정적 성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동남부 교우회 초창기 활동과 주요 인물들의 등장

1980년에 닳을 올려 항해를 시작한 우리 동남부교우회도 더욱 짜임새 있게 구성되고 있을 때 1981년 2월에 최초의 캠퍼스 커플인 송경석 (농학 74)과 이혜옥 (간호 74) 부부가 가세하여 젊은 피로 교우회 모임을 조직화하고, 만년 총무로 연락과 각종 심부름을 담당하여 활기를 제공하고 선배들의 이쁨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1982년엔 김준열 (기계 80)도 Georgia State University에 computer science를 공부하러 와서 가세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1982년엔 고 문상호 교우는 한인회 제14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고대 출신이 이사 4명이나 활약하고 점차 교우회 모임도 부부 포함 20여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주 기억에 남을 역사적인 사건은 1983년에 국무총리로 가신 김상협 총장님의 후임인 김준엽 총장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셔서 교우들과 만나셨

고, 그 자리에서 안암동 본교 캠퍼스 뒤와 이공계 캠퍼스 뒤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고 이공계 캠퍼스가 크게 확장될 뿐만 아니라, 1972년에 확대 개편된 의과대학도 이전하고 병원도 크게 질 것이라는 계획을 알려 주시어 그 날 참여한 교우들이 매우 기뻐하였다고 생생히 증언하셨습니다.

1983년 9월에는 우리 동남부교우회 최고의 멧쟁이인 박순 (법학 61)이 출현하여 한국에서의 본교와 총교우회의 발전과 1960년대의 학창시절과 국내 상황을 생생히 전하며 에너지를 북돋웠습니다. 1984년엔 서봉규 (건축 71) 교우가 입성하여, 비지니스로 시간이 여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멤버로 부인과 함께 큰 몫을 담당합니다. 그 후로도 총무로 부회장으로 2004~5년엔 회장으로 교우회가 어려울 때마다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우리 교우회의 보물이었습니다. 1986년엔 전종석 (경영 59) 교우가 당도하였는데, 그는 여러 분야에 박학다식하고 문학에도 조예가 깊어 모임에서 다양한 대화를 이끌어 재미와 유익을 더 하게 되며, 1994년엔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인근의 North Carolina의 Charlotte에서 4시간을 운전하여 CPA로 한인회장 등을 역임한 전기현 (사학 63) 교우는 후배 1~2가족을 대동하고 주기적으로 참여하였으며, South Carolina Greenville에선 고 강기호 (경제 57) 교우가 달려와서 외로운 이민 생활에서도 안암골 호랑이의 기개를 펼치며 정열을 불태웠다고 전언 됩니다. 이 외에도 올봄에 작고하신 달변과 학창시절 여운계 선배 등과 “고대 연극반”을 창립했던 고 차수웅 (국문 60)교우와 특유의 부지런함과 섬세함으로 대화를 이끌었던 정상화 (농학 60)교우가 참가하였으며, 그는 나중에 70대의 나이에도 이순재 (화학 61)과 함께 히말라야를 등정한 우리 산악회의 중추였습니다.

1980년 중반에 고대 교우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름을 부은 이는 한성우 (불문 65)교우입니다. 우리 교우회원 중에 외모와 성격을 따진다면 가장 호랑이다운 이가 이 분이십니다. 학창 시절부터 아이스하키 등 운동을 잘 하고 두주 불사하며 호탕하기가 끝이 없었던 “Mr. Korea University”로 손색이 없었으며 수준급 골프 실력을 보이며 선후배들에게 골프 붐을 일으킵니다. 그는 후에 고연전에서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시작 추정) 본인이 맹활약 하면서 팀이 승리하는 데 선봉에 섭니다.

교우회가 1980년 출발하고 매년 성장하던 중 눈에 띄게 발전했을 때가 1989년 고 김철홍 회장(경제 60)과 박남철 총무 (기계 67)가 리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전부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약 40여명이 명단에 파악돼 있었고, 회칙과 임원단이 보강되고 행사가 정례화 되었습니다. 필자가 1985년부터 텍사스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다가 1989년에 Georgia State로 트랜스퍼하여, 처음으로 구 코리아타운의 한 건물에서 열렸던 연말잔치에 갔을 때, 제법 많은 교우들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하여 격식을 갖추고 진행되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해에 파악된 명단에는 위의 기술된 분들 외에도 고 이세숙 (의학 52)을 최고참으로 황원희 (영문 56), 우문순 (생물 57), 정희창 (의학 60), 고 최광웅 (상학 60), 이정리 (생물 62), 신현덕 (법학 64), 장은봉 (경영 71), 조장원 (물리 77), 김광민 (식품 78)등과 소수의 유학생들이 올라 있었습니다. 이세숙 교우는 세브

랑스 출신인 남편 이응민 박사와 같이 이곳에서 초창기 의사로 교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정희창 교우는 1970년에 부인인 정혜자 (의학 60)과 뉴욕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치고 1978년에 이 곳으로 이주하여 마취과와 알러지 전문의로 일하고 은퇴하였으며, 지역 사회와 단체 들에서도 오래 섬기고 특히 의대 동문들이 연락을 하고 자체적으로 모임을 갖다가, 2010년대에 전체 교우회에 편입되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정리 교우는 최초로 기계자수업을 백화점 내에서 시작하여, 성공적 비즈니스를 하면서 교우회에서 티셔츠와 모자 등을 만들어 행사할 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신현덕 교우는 새로운 사업으로 급부상하던 뷰티서플라이업에서 선도적으로 도매업에 진출하여 업계를 발전시키는데 큰 업적을 끼쳤습니다. 장은봉 교우는 공인회계사로, 조장원교우는 도매 세탁업으로 활약하였습니다.

그해엔 참 가슴 아팠던 일도 있었습니다. 직전 회장으로 바쁜 사업 중에도 교우회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광경진 (재료 70)가 새벽에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여 모두를 슬프게 하였고, 그의 장례는 고인이 출석했던 “갈보리 침례교회”의 지형석 목사 (사회 63)의 집례로 치뤄졌고, 부인과 어린 두 딸의 통곡 속에 고 김승경 교우 (농경 63)의 구구절절 후배 사랑의 애끓는 조사가 아직도 눈에 선하며 귀에 쟁쟁합니다.

6. 1990년~1995년까지

올림픽 특수와 대한항공 직항으로 비상하는 애틀랜타, 한인 사회의 성장과 발전

1996년 7월 19일에 개최된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전체 애틀랜타 지역은 계속 유입되는 인구와 기간 시설의 재정비와 확장, 새로운 대규모 회사들과 주택/산업 단지들의 폭발적 증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 전에는 세계인들에게 New Jersey 의 도박도시 “Atlantic City”와 혼동되었으나 잦은 매스컴의 관심과 노출로 주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최첨단의 기술과 산업으로 격상하며 “Hotlanta”로 조용한 전통적 남부도시에서 미국 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역동적으로 발달하며 리드하는 최첨단 도시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한인사회도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을 거쳐 합류하게 되어, 보다 다양하고 규모도 커지며 넓은 지역으로 팽창하게 됩니다. 이에 결정적 원인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이 1994년에 직항을 개설하여 신속히 많은 인적 물적 자원들이 오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 지역에 사무소와 대형 공장 등을 지을 청사진들과 투자 계획들이 나오게 되고, 85번과 285번 고속도로 교차 지역에 “Korean Town”이 발달하게 되어 수 많은 식당, 식품점, 소매업, 도매업 등과 여러가지 의원과 치과, 전문점과 서비스업들이 들어서 자리를 잡게 되어, 애틀랜타와 인근에서 2~10시간 떨어진 Georgia, Alabama, Tennessee, North and South Carolina, Florida 등에서 한국인들이 당일치기 아니면 1~2박 등으로 방문하여 물리게 되어 활황이 일어납니다. 이에 따라 한인회, 식품협회, 주류협회, 요식협회, 세탁협회, 뷰티서플라이 협회, 교회협회, 노인회, 상조회 등의 다양한 교민단체와 한미의 정치참여, 한국의 문화와 글을 알리려는 한국 학교 등이 그 숫자와 크기를 더해갔습니다.

고대 교우회의 발전과 도약: 정기적인 행사 개최, 양교 교류 확대, 낙찰계를 통한 재정 확보 및 조직화 우

리 고대 교우회도 더욱 규모가 커지고 비 정기적이고 소규모의 모임에서 더욱 정기적으로 신년하례회, 정기총회, 임시총회, 야유회, 골프시합, 고연전, 송년의 밤 등을 가지며, 체계화하며 의미와 재미를 더해갔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1980년대 중후반부터 간헐적으로 개최되었던 고대와 연대의 골프시합을 매개로, 그 후에 점차 확대 실시된 축구, 배구, 야구, 발야구, 농구 등의 구기종목이 Jimmy Carter Blvd. 상의 Best Friend Park에서 개최되어, 양교가 학창시절의 라이벌 관계를 되살려 치열한 경기와 응원전을 펼쳐 참가한 “안암골 호랑이”와 “신촌골 독수리” 등과 배우자들, 자제분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미국까지 와서 두 학교의 티를 내냐면서” 타 대학 동문들의 시기와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으며 신문에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매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중단 없이 돌아가며 개최하여 서로 경쟁하면서도 우의를 다지는 최대의 행사로 지금도 개최되고 있어, 타지역과 한국에서 이사 오거나 유학 온 교우들이 너무 신기하고 신나하여 기타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기폭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에는 양교 교우회가 의기투합하여 함께 연말잔치를 크게 열며 교류를 확대하고, 양교에서 총장 등 귀빈의 방문 시 서로 축하하고 골프시합과 정기전을 활성화하고, 이곳에서 태어났거나 자라서 결혼의 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녀들에게 좋은 상대를 함께 찾아주며 도와 주자는 합동 이벤트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우회 모임은 잦아졌으나 90년대 중반 그때까지도 한국식당에서 주말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숫자가 부부 포함해 30명정도에 불과하고, 소액의 회비에 따라 재정이 미약하고 한정된 인원 간에 친교모임에 불과 함을 타개하고 그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원활하게 회장과 임원선출이 이루어져 계승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묘안으로, 매달 모임에 낙찰계를 실시하여 \$200씩 내어 순서를 정하여 돈을 타고, 그 날 받은 사람이 식사 값을 내고 교우회 기금으로 \$200씩을 도네이션하여 적립하기로 하여, 약 15가족이 참여하여 2007년도까지 지속되어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회장을 도와 부회장과 총무가 모든 연락과 행정에 같이 힘쓰며, 차기와 차차기 회장을 계승하면서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리더십의 중단 없이 교우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화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송년회에는 약 50여명이 참가하게 되고 일년을 되돌아 보고 차기 회장과 임원을 선출한 후에, 2부 친교시간에는 노래와 춤 자랑과 그 당시 유행했던 라인댄스로 남녀노소 모든 가족들이 나와 단체로 흥겨운 춤을 추고 “고래사냥” “벚노래”, “막걸리 찬가”, “응원가”를 목 터지게 부르고 “교호”와 “승리호”를 외치며 끝 맺곤 하였습니다.

**우리는 고대,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헤이-고대 야!!!**



1990년대 중반 문상호 선배님이 촬영한 Stone Mt. Park에서의 추계야유회 정경
사이 사이에 한기대, 차수웅, 한성우, 박남철 교수님들 부부와 Mrs.문상호님, Mrs.박양삼님의
푸릇푸릇한 모습이 보인다.

7. 이 시대의 교우회에 대한 평가

민족의 최고 사학의 명문으로 지성과 야성을 겸비하고, 자유*정의*진리를 추구하며 20세기 교육의 요람인 안암동에서 교육받고 인격을 도야하고 꿈을 키우고, 자신의 영달만이 아닌 고국의 안정과 발전을 항상 염원하던 우리 호랑이들이 청운의 꿈을 갖고 공부하러 일하러 살아 보려고 1960년 후반부터 1995년까지 이곳 미국 애틀랜타 지역으로 온 지 5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유수의 대학들이 보다 미국문화와 기독교 교육과 활동에 연관되어 훨씬 많은 인원들이 더 일찍이 도미한 것에 비해, 우리의 역사와 영향력은 적게 시작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대 애틀랜타 교우회 개척기”를 정리하며 쓰면서, 필자는 우리 고대인의 면면히 흐르는 일당백의 정신과 능력과 헌신을 발견하고, 우리 선배님들과 가족들의 애씀과 열매에 무한한 감사와 자긍심을 느낍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가족과 직장 and 사업체와 조직과 단체와 교민 사회와 모교와 교우회와 한국과 미국을 위해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살아온 50년은 충분히 인정받으며 축하 받아 함께 감사하고 칭찬하며, 이를 토대로 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의 후배들과 자손들이 가일층 성장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창립교우 부부 탐방문

이종원(사회 95)

우리 애틀랜타 교우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신 창립선배님들의 공은 잊을 수가 없다. 여기 권오승 선배님과 문상호 선배님의 두 창립선배 내외분과 교우회에 대한 사랑과 봉사가 두드러졌던 서봉규 교우 내외분을 방문해 본다.

권오승(정외 55) 선배 내외분

고려대 애틀랜타 교우회의 기틀을 닦은 '큰 어른'

애틀랜타 이민생활 50년의 산 증인...한인 그로서리 '시초'

권오승 교우는 고려대 애틀랜타 교우회의 기틀을 닦은 원로이며, 애틀랜타에만 50년 이상 거주한 역사의 산 증인이다. 1935년생인 권오승 교우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 1961년 5월 16일 간호사인 황인옥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다.

권교우는 애틀랜타에만 50년을 거주한 한인사회의 '대선배'이다. 1972년 Emory대 병원 간호사로 먼저 이주한 부인을 따라 1973년 애틀랜타로 이주했다. 10살과 8살 아들과 딸을 데리고 온 채였다. 이어 미국에서 늦둥이 딸을 하나 더 낳았다.



애틀랜타 교민사회의 전설이시고 우리 교우회 창립 1호 선배인 권오승, 황인옥 교우 내외분

미국에서 성공의 기회를 알아보던 권교우는, 1975년 애틀랜타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Grocery업에 진출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해 사업 기초를 닦았고, 부인은 낮에는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밤에는 가게 일을 도왔다. 그로서리 사업은 잘 되어 기프트샵, 식당 등으로 사업 폭을 넓혔으며, ‘코리아 넘버원’이라는 의미로 회사에 ‘K-One’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성경 말씀을 믿으며 그로서리 사업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식당에서 수백 마리의 칠면조를 구워 나눠주니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올 정도로 관심이 높았어요.”

“우리 한인들이 열심히 살아서 미국사람들을 먹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교우는 남다른 사업 경험과 뛰어난 영어실력으로, 애틀랜타 후배 한인들에게 사업 기회를 소개하고 노하우를 가르쳐주었다. 권교우는 1970년대부터 한기대 (행정 58), 이근우 (영문 55), 손철영 (영문 56), 문상호 (경영 59) 등 고려대 교우들과 자주 교류했으며, 마침내 애틀랜타 고려대인의 모임을 만들기로 의기투합했다. 1980년 11월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교우회의 탄생이다. 당시 권 교우는 ‘고려대학교 미 동남부지역 교우회록’을 발간했는데, 이는 고대 교우회 뿐만 아니라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초창기 역사를 말해주는 귀중한 자료다. 권 교우는 이 같은 공로로 1981년 본교 교우회 표창장을 수상했다.

권교우는 고려대 교우회 뿐만 아니라 애틀랜타 한인사회 50년을 이끈 ‘어르신’이다. 그는 1981년 애틀랜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창립되자, 초대 동남부 협의회장을 맡아 평통의 기반을 닦았다. 그는 평통 회장으로 한국을 오가며 한국 정부에 애틀랜타 한인사회 대표하고 소개해 위상을 높였다.

또한 자신의 자택 지하실을 한인들의 예배 장소로 제공했는데, 결국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 창립멤버 가운데 30명이 된다. 그는 1984년부터 40년이 지난 지금도 연합장로교회 장로로 재직하고 있다. 이어 애틀랜타 기독교실업인 협회 창립에도 힘써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하느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리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고려대 교우회와 애틀랜타 한인사회가 앞으로도 이처럼 영원히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대 사랑, 고대 자랑

창립교우 부부 탐방

문상호(경영 59) 선배 내외분

교우회 창립멤버로 언제나 후배들을 돌본 '내리 사랑'

애틀랜타 한인 세탁소 '원조'로 한인 정착, 사업 진출 도와

문상호교우는 고려대 애틀랜타 교우회 창립 멤버이며, 언제나 고려대 후배들을 돌본 '수호 천사'이다. 또한 애틀랜타 한인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한인사회 최초로 세탁업에 진출해 후배들을 위한 길을 닦았다.

1939년생인 문교우는 1967년 부인 문영자씨와 결혼해 1남1녀, 손주 2남1녀를 두었다. 고려대 상대 경영학과 재학중 4.19혁명을 겪었으며, 졸업 후 한국약품 기획관리실에서 근무하며 체계적인 사업 경험을 쌓았다.

문교우는 1970년 미국 이민을 결심했다. 할리우드 영화 속 동경하던 미국생활에 도전하고 싶었다. 그는 과감하게 한인이 거의 없는 앨라배마 트라이시티에 정착했다. 뛰어난 영어와 사무경력, 회계실력을 활용해 미국회사에서 9년 동안 accounting 부서에 근무했다.

문교우는 회사를 그만둔 후 1979년 4월 애틀랜타로 이민 왔다. 애틀랜타라는 큰 도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서였다. 1981년 세탁소 '스타 클리닝'을 창업한다. 애틀랜타 최초의 한인 세탁소였다.

문교우가 세탁업에 주목한데는 이유가 있었다. 소자본을 가진 애틀랜타 한인들에게 특별한 노하우 없이, 약간의 기술과 성실함으로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세탁업을 개척한 문교우는 한때 10개의 세탁소를 경영하며 한인 세탁업의 '선구자'가 됐다. 뿐만 아니라 세탁소 개업에 필수적인 세탁장비까지 취급하면서, 한인들을 위해 세탁소 개업에 필요한 '원스톱 셋업' 서비스까지 제공했다. 후배 한인들에게 장비 제공과 노하우까지 제공하면서 문교우는 애틀랜타 한인 세탁업의 핵심이 되었다.

문교우는 세탁업을 통해 고려대 후배 돕기에도 나섰다. 박남철(기계 67)이 애틀랜타에 이민오자, 세탁소에 채용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박교우가 마침내 독립하고 자신의 세탁소를 차리겠다고 결심하자, 가게 자리 알선 및 개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독립한 박교우는 김교학 교우의 미국 시민권 취득 등에 도움을 주는 등, 문교우의 '내리사랑'은 후배들에게 대대로 이어졌다.

문교우는 1980년 11월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교우회 창립 시 창립 멤버로 동참했다. 초창기 교우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말없이 찬조금과 후원금을 기부하며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그의 '교우회 사랑'은 수십년간 계속되어, 2010년 교우회가 어려움을 겪었고 이순재 회장이 취임했을 때도 음으로 양으로 지원했다. 교우들은 "문교우의 말없는 선행과 후배 내리사랑은 끝이 없었다"고 술회한다.

애틀랜타 한인들의 초기 정착과 사업성공에 힘쓴 문교우는 1992년 애틀랜타 한인회 부회장까지 역임하며 봉사했다. 당시 한인회장은 고대 교우였던 손철영 회장(영문 56)이었기 때문에, 애틀랜타 한인회를 사실상 고대 교우회가 이끌던 시절이었다. 영어가 유창하고 미국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문교우는 애틀랜타 한인사회를 대표해 애틀랜타와 미국 주류사회와 앞장서 교류했다.

문교우는 풍류를 즐길 줄 아는 고대인이었다. 특히 골프를 즐겨, 2000년 9월 알바트로스를 기록했다. 2003년에는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며 과감히 ‘스타클리닝’ 등 세탁소를 모두 처분하고 은퇴했다. 그리고 부인 문영자씨와 전 세계를 여행하며 은퇴생활을 만끽했다.

문교우는 2021년 애틀랜타 한인사회와 교우회의 애도속에 소천했다. 부인 문영자씨는 “고인은 열심히 일하고 인생을 즐겼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고려대 교우회와 애틀랜타 한인사회를 생각했다. 고인의 ‘내리사랑’은 끝이 없었다.”고 술회했다.



후배들에게 언제나 따뜻했던 문상호 교우 내외분



부군의 알바트로스 기념비를 자랑하시는 문영자 님

창립교우 부부 탐방

서봉규 (건축 71) 선배 내외분

교우들에게 언제나 자택 문 활짝 열어준 '술선수범'

'교우회 대모' 부인 고옥희씨 지극히 간병

서봉규 교우는 부인 고옥희씨와 함께 애틀랜타 고려대 교우회 일에 술선수범하며 모든 일을 진행한 '산 증인'이다.

1952년생인 서교우는 '교우회 대모'로 불리게 되는 부인 고옥희씨와 1980년 결혼해서 아들 셋을 두었다.

한국의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강의한 서교우는 "큰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자"며, 1983년 유학을 위해 미국 필라델피아에 입국했다. 그러나 현지 신문에서 읽은 '애틀랜타-대구시 자매결연' 기사가 그의 운명을 바꿨다. 1984년 부인과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애틀랜타로 가보자"고 과감하게 나아갔다.

서교우 부부는 애틀랜타 다운타운에서 샌드위치 가게 등 식당 사업을 시작으로, 특유의 성실함을 발휘해 주얼리 샵, 주유소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을 계기로 애틀랜타 한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서교우의 사업도 번창했다.

"저희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애틀랜타 한인 인구가 7000명 정도였는데, 올림픽을 계기로 급격하게 늘어나 현재 한인 인구가 15만명이라고 합니다. 애틀랜타 한인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 교우회도 함께 발전하고 있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서교우는 2004, 2005년 교우회 회장을 두차례 역임했다. 교우회 부회장은 네 차례 역임했다. 회장 재임중 큰 발자취는 바로 '고려대 100주년 기념행사' 참여였다. 서교우는 모교 발전기금 모금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뉴욕에 있었던 기념행사에 참여해 본인이 앞장서 7500달러를 후원하는 '술선수범'을 보였다.

서교우의 교우회 사랑은 교우회가 어려울 때 더욱 빛났다. 특히 2010년 교우회가 잠정 중단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자, 서 교우는 부회장 역할을 자임했다. 뉴욕에서 내려온 이순재 회장을 보필해 애틀랜타 교우회 정상화에 앞장섰다.

서교우의 교우회 사랑에는 부인 고옥희씨를 빼놓을 수 없다. '교우회 팔방미인'인 부인은 약 15년 동안 매월 교우회가 열릴 때마다 모임의 지원을 도맡았다. 또한 매년 고연전이 열릴 때마다 여성 대표선수로 나서 고연전 승리에 기여했다. 또한 교우회 및 산악회의 송년 모임, 또는 가까운 교우들이 개인사가 있을 때마다 자택을 기꺼이 내어주는 등, 매년 '오픈 하우스'를 하여 교우회의 '대모'로 존경받았다.

서교우 부부의 고려대 교우회 사랑은 인생의 고난이 닥쳐도 멈추지 않았다. 2014년 8월 부인 고옥희씨가 교모세포종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규모 뇌수술을 받아야 했고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였다.

쉽지 않은 수술이었지만 서교우의 지극 정성으로 은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 그 이후 서 교우는 10년 이상 부인을 지극정성으로 24시간 간병하고 있다. 서교우 부부의 '금슬'은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1979년 중매로 딱 한번 만나서 다음해 결혼했지만, 험난한 미국 이민 생활속에서 아들 셋을 키우고 어느새 결혼생활 44년입니다. 앞으로 교우회와 함께, 부부가 서로 영원히 인생의 동반자로 살고 싶습니다."



열부 중에 열부인 서봉규 교우와 고옥희 님



3. 1996년~2010년 기간 : 교우회 안정 정착기

이광언 (경제 65)

1996년, 올림픽의 도시 애틀랜타, 새로운 한인 사회의 중심으로 떠오른다.

1996년, 애틀랜타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하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맑은 공기와 푸른 숲, 온화한 기후, 그리고 저렴한 생활비는 미국 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한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대, 기아, SK, 금호타이어, 한화큐셀 등 한국 대기업들이 애틀랜타에 동지를 틀면서 한인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1996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전체 인구는 13.7% 증가했지만, 조지아주는 31.1%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은 무려 51.7%나 증가하며 한인 사회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3년까지 조지아주는 50.3%, 메트로 애틀랜타는 109.1% 증가했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우회, 애틀랜타의 성장과 함께하다.

이러한 변화는 고려대학교 교우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96년 당시 36명에 불과했던 등록 회원 수는 2009년 65명으로 늘어났고, 2023년에는 무려 19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 사회의 성장과 함께 고려대학교 교우회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애틀랜타 고려대학교 교우회는 주로 친목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매월 월례모임을 비롯하여 신년 하례 모임, 송년 모임, 춘계 야유회, 총장배 골프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교우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가을에 열리는 연세대학교 동문들과의 고연전은 선의의 경쟁과 화합의 장으로, 교우들의 단합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2001년에는 회칙을 개정하여 교우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고, 2005년에는 모교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교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 시기 교우회는 연초 모임에는 30여명, 연말 송년 모임에는 40여명이 참석하며 선후배 간의 친목을 다지는 안정적인 시기를 보냈습니다.

2008년 7월, 위기와 변화의 기로에 서다.

2008년 7월, 교우회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회장과의 연락이 두절되고, 재정 유보 기

금 및 중요 자료들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15년간 이어져 온 월례모임의 전통을 끊어 놓았고, 교우회는 새로운 운영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2009년 이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다.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교우회는 2009년부터 운영 방식을 개편했습니다. 연초 신년 하례 및 정기총회, 춘계 체육 행사, 고연전, 연말 송년 모임 등 4대 기축 모임과 이사회 모임, 이사장배 골프 대회 모임 등 6개 모임 중심으로 운영하며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우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4대 기축 모임은 교우들의 참여를 높이고, 이사회 모임과 이사장배 골프 대회 모임은 교우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애틀랜타 고려대학교 교우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애틀랜타 한인 사회의 중심에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교우회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1. 1996년~1999년 기간

가. 월례 친목계 중심의 교우 모임 (1996~1999)

1990년대 후반, 조지아주의 동남부 지역은 한국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려대학교 교우회는 졸업 후에도 끈끈한 유대감을 이어가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차수웅 (국문 60), 한성우 (불문 65), 박남철 (기계 67), 박양삼 (농학 61) 회장들의 리더십 아래 교우회는 활기를 띠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당시 교우회의 중심은 월례 친목계였습니다. 매달 20명 남짓한 교우들이 뷰포드 하이웨이 선상의 트레저 아일랜드 상가에 위치한 '서울신정'에 모여 정을 나누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식사와 함께 밀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고국에 대한 향수는 잠시 잊혀지고, 타지에서의 삶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오갔습니다. 계금 정산 후에는 종종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흥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교우회는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동남부 한인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교우들에게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때로는 사업 정보를 교환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교우회는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나. 연초 정기총회와 총장배 골프대회

매년 초, 고려대학교 교우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장소는 도라빌 뷰포드 하이웨이 선상에 위치한, 한인들에게 친숙한 파인트리 상가였으며, 궁전이나 용궁, 두 곳의 널찍한 한식당이 번갈아 가며 교우들을 맞이했습니다.

정기총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우회를 이끌어온 회장단의 노고를 확인하고,

새로운 회장단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전년도 회장단은 꼼꼼하게 정리된 재정 보고서를 통해 교우회의 건전한 운영을 밝혔고, 신임 회장단은 야심 찬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발표하며 교우들의 기대를 한껏 높였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예산안을 둘러싼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고,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우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고려대학교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찾아갔습니다. 총회의 마지막 순간, 참석 회원들의 우렁찬 박수 소리는 교우회의 밝은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예고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4월과 5월이면, 고려대학교 교우들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스톤 마운틴 골프장이나 올드 애틀랜타 골프장에서 열리는 총장배 골프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교우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치열했지만, 그 속에는 끈끈한 교우애가 녹아 있었습니다. 문상호, 송휘석, 한성우, 송경석, 조장원 등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교우들이 우승 트로피를 번갈아 들어 올렸지만, 진정한 승자는 참가한 모든 교우들이었습니다. 경기 후에는 시원한 맥주와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다. 가을의 전통, 고연전 잔치

9월이나 10월 가을에는 도라빌에 있는 럭키 솔 파크나 노크로스의 베스트 프렌즈 파크에서 고연전(연고전) 잔치가 열렸습니다. 배구, 소프트볼, 터치볼, 축구, 골프 등 다양한 종목으로 경기를 치렀으며, 양교 교우들은 즐겁게 만나 식사를 함께 하고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젊은 혈기로 경쟁했지만, 이제는 고국을 떠나 애틀랜타에서 만나 함께 운동하며 웃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기 고연전 잔치에 자주 참가하였던 연세대학교 교우는 이동춘 (생물 55), 이영호 (상학 57), 이무희 (의대 61), 송희일 (이공대 61), 윤효길 (상학 63), 장학근 (건축 64), 강자영 (행정 64) 등이었습니다.

라. 연말 송년모임과 차기 회장단 선출의 어려움

연말 송년모임은 식사 전에 당해 년도 회장단이 연중의 교우회활동을 이야기하고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고, 이후 다음 해의 회장 및 부회장 예정자를 소개하는 패턴이 매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종 송년모임시까지 명년도 회장 및 부회장 등 회장단이 정해지지 않는 해도 있었습니다.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일은 교우들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바쳐야 하는 봉사직입니다. 이 시기 우리 교우회는 친목계 등으로 매달 모임을 가졌는데, 대부분 모든 연락은 전화로 이루어졌고 보통 1교우당 3번 정도 통화를 하게되어 한번 모으려면, 150번 정도의 통화가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회장단이 동원되어 전화 연락하고 참여여부 확인하는 등 연락하는 데만 3일 가량 걸렸습니다.

이시기 대부분의 회원은 리커 스토어, 가스 스테이션, 세탁소 등 시간 여유가 별로 없는 자영업자가 많았

는데도 우리 교우님들은 순번이 되면 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를 아끼지 않았지만, 가끔 연말까지 다음해의 회장단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우회가 순탄하게 운영되고 발전이 있으려면 우리 교우 누구라도 본인이 받은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교우회에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선임이 이루어지면 이어 게임, 오락, 노래, 춤판이 어우러졌는데, 이시기 사회는 입담 좋은 김승경 교우 (농화 63,작고)가 도맡아 했습니다. 춤은 라인댄스가 인기를 끌며 라인댄스 교습을 받은 문상호, 박양삼, 박남철, 송경석 교우 부부들이 여타 교우님들을 리드했었습니다.

마. 가짜 교우 문제 해결과 졸업생 명부 확인 관행 정착

이 시기에는 모교를 다니지 않았음에도 교우회에 참석하고 지역 신문 등에서 고려대 졸업생 행세를 하는 가짜 교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정리, 송경석 교우님들이 모교에서 발간한 졸업생 명부를 통해 졸업생 여부를 확인하여 해결했습니다. 이 후 개인이 교우회 가입 의사를 밝힐 경우 집행부에서 모교 졸업생 명부를 통해 졸업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관행이 정착되었습니다.

2. 2000년~2005년 기간 : 교우회 활성화 기간

이 기간 중 교우회를 통괄, 대표하는 회장은 2000년도 최영찬 (농경 70,작고), 2001년 김종학 (독문 70), 2002년 김영배 (재료 70), 2003년 이광언 (경제 65), 2004년~2005년 서봉규 (건축 71) 교우였습니다.

가. 신년 하례 모임 및 정기총회

매년 1월 둘째나 셋째 일요일 저녁에 모여 식사를 하고 이어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통상 정기총회는 전년도 회장님의 재정 집행 결과 보고와 신임 회장님 인사 및 신임 회장단 선임, 그리고 당해 연도 사업 및 예산 계획 등을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나. 월례 친목계 모임

매월 둘째 또는 셋째 일요일 저녁에 정기적인 계모임을 통해 교우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때로는 식사 후에 해당 월의 계금을 수령하신 교우가 노래방으로 일행을 초대하여 술과 춤, 노래를 즐기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신년 모임이나 월례 모임 장소로는 주로 I-285 하이웨이와 뷰포드 하이웨이(Buford Hwy)가 만나는 뷰포드 하이웨이 선상에 위치한 트레저 아일랜드나 파인트리 상가 근처에 있는 서울 신정, 한일관, 한우리, 용궁, 용수산 식당 등을 이용했습니다.

다. 춘계체육대회

많은 교우들께서 골프를 즐겼기 때문에, 4월과 5월에 열리는 춘계 체육대회는 대부분 골프 대회, 특히 총장배 골프 대회로 대체되었습니다. 골프 대회는 애틀랜타 다운타운에서 차로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로열 레이크 골프 클럽, 리유니온 골프 클럽, 치코피 우드 골프 클럽, 스톤마운틴 골프 클럽, 그리고 올드 애

틀랜타 골프 클럽 등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시합 결과, 주로 한기대, 문상호, 한성우, 송경석, 그리고 서상희 교우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라. 추계 고연전 축제

매년 10월 초 일요일에 개최되는 고연전-연고전은 애틀랜타 및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양교 교우들의 축제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고연전은 주로 뷰포드 Hwy 남쪽 헤리티지 골프장 인근 럭키 쇼울 파크와 노크로스 지미 카터 Blvd에 위치한 베스트 프렌즈 파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양교 회장단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시합 종목은 배구, 소프트볼, 족구, 터치볼 등 4개 종목과 골프였습니다. 시합은 보통 주최 측이 준비한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경에 시작되었으며, 시합 결과는 한 해 이기면 다음 해에는 지는 등 균형을 이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GA Tech, Emory, UGA, GA State 등에서 수학하는 재학생 교우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해에는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배구에서는 문상호, 송경석, Mrs. 서봉규 교우 등이 뛰어난 활약을 보였으며, 소프트볼 및 족구에서는 문상호, 한성우, 서상희 교우가 중심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터치볼에서는 Mrs. 서봉규 교우와 Mrs. 서상희 교우가 주축이 되어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 시기 고연전 시합에 선수로 뛰고 뒷풀이 잔치에도 참여하였던 연세대학교 동문들은 주로 정병돈 (영문 64), 김경식 (상학 66), 홍승훈 (상학 66), 박형국 (상학 66), 이원선 (기계 68), 전기준 (기계 68), 홍기태 (행정 69), 강철 (체육 70) 등이었습니다.

마. 연말 송년모임

연말 송년 모임에서는 회장이 연초에 회원님들에게 보고했던 당해 연도 행사 및 사업 결과를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하고, 재정 집행 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후 만찬과 함께 우리 교우회의 디바셨던 Mrs. 한성우 교우님과 Mrs. 서봉규 교우님이 빼어난 노래솜씨를 사양치 않으시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주셨습니다. 유희 및 게임 진행은 임윤용 교우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바. 2001년도 교우회 회칙 개정

2001년 김종학 교우 (독문 70) 회장 재임 시절, 우리 교우회는 1980년 제정된 9개 조항으로 구성된 애틀랜타 교우회 회칙("고려대학교 교우회 미동남부 지부 회칙")을 19개 조항으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1980년 제정된 회칙과 2001년 개정된 회칙 모두 대부분 총교우회(고려대학교 교우회)의 회칙 제정 및 개정 내용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개정된 교우회 회칙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회원 구분을 세분화하고, 이사회 조직을 신설한 것입니다. 종전 회칙에서는 교우회 회원을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나누고, 정회원은 고려대학교 정규 과정 이수자로, 명예회원은 고려대학교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회칙에서는 회원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확대하고 각 회원 별 자격 조건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교 대학원 석

사 및 박사 학위 수여자, 연구 과정 수료자, 우석대학교 (경성여의전, 서울여자의대, 수도의대 포함) 및 부속 간호학교 졸업자도 정회원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회칙에는 교우회의 집행 기구인 회장단 조직과는 별개로 중요 사항 의결 기구로 이사회를 신설하는 조항 (제8조)이 추가되었습니다. 회칙에서 교우회 중요 사항 의결 기구로 명시된 이사회는 제정 후 10여 년 동안 눈에 띄는 활동은 없었으나, 2012년 이사장배 골프 대회 신설을 계기로 이사회비 및 후원금 모금 등을 통해 교우회 재정에 일익을 담당하여 오고 있습니다.

사. 2005년 모교 개교 100주년 기념 발전 기금 모금 및 기념행사 참가

2004년 9월, 서봉규 (건축 71) 교우께서 회장으로 재임하시던 시절, 교우회 월례 모임에 뉴욕 교우회 유재현 회장 (농경 62)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유재현 회장께서는 2005년 봄에 모교 개교 100주년 행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시며, 애틀랜타 교우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모교 개교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교 발전기금 모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듬해 2005년 봄 뉴욕에서 개최된 고려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전미주대회에 서봉규 회장과 이광언 교우가 애틀랜타 교우회 대표로 참석하여, 애틀랜타 교우님들의 정성으로 모금된 3,500달러와 서봉규 회장의 개인 후원금 6,500달러를 합한 총 10,000달러를 국제재단(IFKU)을 통해 모교에 전달하였습니다. 모교에서는 애틀랜타 교우회의 뜻깊은 후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모교 내 신설 연구실 중 하나에 '애틀랜타 실'이라는 명칭을 부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3. 2006년~2009년 기간

가. 2006년~2009년 상반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서상희 교우 (전기 74), 이해옥 교우 (간호 74), 왕수창 교우 (체교 79)가 회장으로 교우회를 이끌었으며, 2009년도 4/4분기는 이순재 교우 (화학 61)가 임시회장으로, 2010년도는 정식회장으로 교우회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신년 하례 겸 정기총회 및 연말 송년 모임에는 꾸준히 30~40여 명의 교우들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모임 장소로는 뷰포드 하이웨이 파머스 마켓 인근의 서울신정과 용궁(후에 용수산으로 개칭)이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2006년 서상희 회장 재임시에는 아미카롤라 폭포 주립공원에서 춘계 야유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치코피우드 골프장 등에서 골프 모임으로 춘계 야유회를 대신하여 친목을 다졌습니다.

가을 고연전은 베스트 프렌즈 파크와 둘루스 존스 브리지 파크에서 개최되었으며, 배구, 소프트볼, 족구, 테니스, 골프 등 다채로운 종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시기에 문상호, 송경석, 서상희, Mrs. 서봉규 교우는 배구 주전 선수로, 문상호, 한성우, 김종학, 송경석 교우는 소프트볼 및 족구 주전 선수로 활약하며 교우회의 단합을 도모했습니다.

나. 교우회 위기 극복과 재도약

2009년 6월, 우리 교우회는 창립 이래 지속되어 온 월례 모임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통상 모임 날짜 7~10일 전에 회장단으로부터 모임 통지 연락이 오던 관례가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 교우님들께서 수소문하였으나 당시 회장이었던 왕수창 교우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월례 모임과 친목계 모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왕 회장과 연락이 닿지 않아 교우회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왕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교우회에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우리 교우회의 흑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우회는 약 5,000달러(전임 이해옥 회장님 추산 금액)의 재정 유보금 손실과 함께 그동안 집행부에 전해져 왔던 각종 자료 및 기록물을 분실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우들은 이 사태에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했지만, 이광언 교우 (경제 65), 박남철 교우 (기계 67), 서봉규 교우 (건축 71) 등을 중심으로 중단된 교우회 모임을 수습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2009년 9월, 대부분의 교우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습 대책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연말까지 임시 회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임시 회장에 이순재 교우 (화학 61), 부회장에 서봉규 교우 (건축 71)를 선출하여 교우회의 제반 뒷수습을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향후 월례 모임은 지양하고 연초 및 연말 모임, 춘계 야유회, 추계 고연전 등 큰 행사만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2009년 9월, 임시 회장으로 선임된 이순재 회장은 재정 유보금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10월 고연전과 연말 송년 모임을 성공적으로 주관하셨습니다. 특히, 둘루스에 있는 "Sound of Music" 노래방 홀에서 열린 연말 모임에는 예상보다 많은 40여 명의 교우 및 가족들이 참여하여, 왕 회장 사건의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 2010년 교우회 신규체제 출범

2010년부터 우리 교우회는 기존의 월례 모임 대신, 모든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연초 및 연말 모임, 춘계 체육 행사, 고연전 등 4대 기축 행사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10년 1월, 뷰포드 창고 식품 앞 용수산 식당에서 신년 하례 겸 정기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순재 회장께서는 앞으로 교우회 운영 방향을 설명하셨습니다. 기존의 월례 모임은 지양하고, 신년 하례 모임(총회 병행), 연말 송년 모임, 춘계 야유회 또는 체육 대회, 가을 고연전 등 4대 모임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모임을 갖는 방안을 제안하셨고, 참석한 모든 회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 해 춘계 체육 대회는 애틀랜타 북부에 위치한 '리유니온' 골프장에서 열린 총장배 골프 대회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을 고연전은 둘루스에 있는 '존스 브리지 파크'에서 개최되었으며, 종목은 예년과 같이 배구, 족구(발야구), 소프트볼, 그리고 골프 시합이었습니다. 연말 송년 모임은 스와니에 위치한 조선일보사 별관 건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장단의 연중 교우회 활동 보고와 재정 집행 상황 보고 후에는 여흥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윤용 교우의 사회로 진행된 여흥 시간에는 '교우회 가수왕 뽑기 노래자랑 시합 대회'가 많은 교우님들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우리를 즐겁게 한 재인(才人) 교우님들' 참조)

우리를 즐겁게 하였던 재인(才人)교우님들

우리 교우회는 수년 전까지 연말 송년 모임 때마다 춤과 노래 잔치를 빼놓지 않고 열었습니다. 어떤 모임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주저 없이 2010년 송년 모임을 꼽겠습니다. 당시 이순재 선배님 (화학 61, 현재 LA 거주)께서 회장을 맡으셨고, 스와니 H마트 근처 구 조선일보사 별관에서 '교우회 가수왕 뽑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는 우리 교우회의 빼어난 재원이자 엔터테이너이신 임윤용 교우 (사회 79)께서 기획하고 연출하셨으며, 사회까지 맡아 주셨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명무대였습니다.

심사위원은 노래 경연 대회 참가자들의 배우자를 제외하고, 노래를 못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세 명의 교우, 한기대 (행정 58), 이순재, 그리고 제가 맡아 땀을 뻘뻘 흘리며 가수왕 선정에 힘썼습니다.

총 일곱 분의 교우님께서 전문 밴드의 연주에 맞춰 열과 성을 다해 경연에 참가하셨습니다. 영예의 대상은 최진실의 '사랑의 미로'를 부르신 박경숙 (한성우 교우의 부인)께서 차지하셨습니다. 금상은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을 부르신 고옥희 (서봉규 교우의 부인)께서 차지했고, 은상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부르신 진기숙 (임윤용 교우의 부인)께 돌아갔습니다.

대상을 받으신 박경숙님은 길옥윤과 패티김의 노래를 패티김보다 더 정감 있게 부르시는 분으로, 20여 년 넘게 교우님들이 듣고 싶어 하는 노래를 그 자리에서 불러 주시던 우리 교우회의 진정한 디바셨습니다. 이날 앵콜곡으로는 패티김의 '4월이 가면'을 부르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금상 수상자이신 고옥희님은 2014년 뇌 수술을 받기 전까지 15년여간 교우회의 궂은일을 도맡아 처리하시는 만능 일꾼이셨습니다. 고연전의 배구나 터치볼 시합 때는 언제나 주전 여자 대표 선수로 뛰셨습니다. 또한 종종 가까운 교우님들이나 산악회 회원님들을 자택에 초대하여 직접 담근 약주와 한국에서 가져온 나물 반찬 등을 대접해 주시곤 했습니다. 이날 앵콜곡으로는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부르셨습니다.

야! 지금은 말이 어눌한 그때 그 사람, 고옥희 교우님!

10여년 넘게 밤잠을 설치면서 부인을 24시간 간병하는 열부 중에 열부인 서봉규 교우님!

I can't help loving you !!

은상을 받으신 진기숙님은 가수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부르셨습니다. 타고난 才人들인 임윤용 교우 부부는 종종 '그대 그리고 나', '향수' 등의 노래를 듀엣으로 "두아에무아" 보컬보다 더 잘 불렀습니다. 부부 2중창을 그렇게 잘 부르는 부부는 고대나 연대를 통틀어 이 둘 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I like you!!

이제 세월이 흘러 세대도 바뀌고 정서도 변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우회가 가졌던 위와 같은 재능 있는 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 만들어냈던 가수왕 뽑기 무대를 다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才人교우님들과 그분들이 만들어냈던 명무대를 그리워할 뿐입니다.

우리교우회 가수왕



한성우 (불문 65) 박경숙 부부



서봉규 (건축 71) 고옥희 부부



임윤용 (사회 79) 진기숙 부부



재인(才人) 임윤용 교우의 끼가 발동되고 있다

4. 체계적인 교우회 활동 시작과 동남부 교우회의 높아진 위상 : 성숙기



안성호 (기계 78)

뜻밖의 부름, 그리고 결심, 봉사의 시작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삼성전자 주재원을 마치고, 2007년 7월, 새로운 꿈을 품은 비행기는 나를 조지아주 Suwanee의 푸른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랜 시간 정든 회사의 울타리를 벗어나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묘한 감정으로 벅차 올랐습니다. 이민자로서 펼쳐질 새로운 삶의 무대, 애틀랜타는 나에게 단순한 도시가 아닌,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다가왔습니다.

2010년 10월경, 제가 운영하는 청담 식당에 고대 선배님들이 오셔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고대의 기개가 흘렀고, 선배님들이 반가운 얼굴들과 서로 마주하며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때 박양삼 선배님의 목소리가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안 사장, 자네가 우리 동남부 교우회 회장을 맡아야겠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주변 선배님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힘썼습니다. 애틀랜타 이주 후 교우회 활동과는 담을 쌓고 지냈던 터라 당혹감은 더욱 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처음 본 저를 이토록 믿고 맡기시려는 걸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낯선 땅에서 펼쳐질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선배님들의 믿음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처럼 다가온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배님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당시 동남부 지부는 잠든 거인과 같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채, 맥박은 약하게 뛰고 숨결은 미약했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열정은 식어 보였고, 재정은 메마른 샘처럼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띄엄띄엄 들려오는 소식들은 뿔뿔이 흩어진 교우들의 소식 뿐, 교우회를 향한 발걸음은 좀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미하게 남아있는 불씨를 보았습니다. 어딘가에 묻혀 있을, 고대인의 긍지를 잊지 않은 심장들을 느꼈습니다. 비록 잠들어 있을지라도, 한때 안암골 호랑이처럼 용맹했던 기상은 여전히 그 안에 살아 숨 쉬고 있을 터였습니다.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교우들의 참여도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직전 회장이신 이순재 선배님, 서봉규 선배님 부부께서 헌신적으로 교우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광언 선배님, 박남철 선배님 등이 도와줄 테니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모교를 향한 애정과 교우들과의 교류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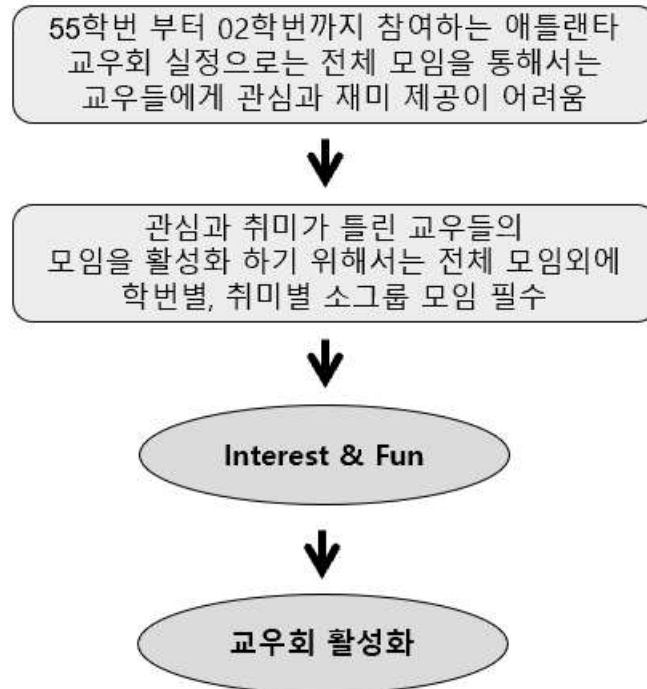
저는 교우회 활성화를 위해 봉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잠든 거인을 깨우고, 메마른 샘에 다시 물을 채우겠다고. 흩어진 불씨를 모아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을 피우겠다고. 고대인의 금지를 되살리고, 동남부 지부를 다시 힘차게 뛰는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이것은 단순한 교우회 활성화가 아니었습니다. 잊혀진 금지를 되찾고,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는 우리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모든 고대인들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닫힌 마음을 열다. 진심을 담은 소통.

가장 먼저 교우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백여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색함과 쑥스러움을 넘어 진심을 담아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묻고, 교우회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너무나 반갑게 대해주시는 선배님도 많았지만, 냉담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꾸준한 노력 끝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동남부지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교우들을 만나 담화하고, 과거 행사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 낮은 교우회 참여율: 많은 교우들이 교우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재정 부족: 교우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 행사 부족: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만한 매력적인 행사가 부족했습니다.
- 연령대 간 소통 부족: 젊은 교우들과 연령대가 높은 선배님들 간의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교우회도 다른 많은 곳들처럼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시간을 내기 어려운 교우들, 부족한 참여, 그리고 빠듯한 재정 등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교우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우회 소식을 자주 알리고, 회장인 제가 직접 교우들에게 연락해 안부를 묻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또한, 교우회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작은 기념품을 드리거나 경품 추첨을 하는 등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재정 문제는 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개인 후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틀에 박힌 행사에서 벗어나 교우들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여 교우회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세대 차이로 인한 소통 부족 문제는 연령대별 소모임을 활성화하여 해결했습니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교우회를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모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잠자던 호랑이가 깨어나다: 교우회의 부활

잠자는 호랑이의 심장에 불을 지피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스며드는 푸른 잔디 위에서는 하얀 공이 춤을 추는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잔디 위에서 펼쳐지는 골프 대회는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맑은 웃음소리와 경쾌한 타격음이 어우러져 싱그러운 봄날의 활기를 더했습니다.

뜨거운 여름, 시원한 호수 바람이 살랑이는 물가에서는 흥겨운 야유회가 펼쳐졌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로 퍼져 나가는 웃음소리와 이야기 꽃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수채화 같았습니다. 함께 나누는 식사와 담소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스함을 전했습니다.

가을의 낭만적인 단풍 아래,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펼쳐지는 야유회와 고연전 체육대회는 뜨거운 열정과 끈끈한 우정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옛 추억을 되새기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시간이 되었고, 울긋불긋하게 물든 단풍 앞은 마치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듯 아름다웠고, 승패를 떠나 함께 땀 흘리며 웃는 모습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에서는 서로에게 격려와 감사를 전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함께 맞이할 설렘을 나누었습니다. 나이를 잊고 함께 웃고 즐기는 모습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대학 시절로 돌아간 듯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회는 나이별로 소그룹 모임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과 함께 옛 추억을 공유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30대의 풋풋한 열정,

40대의 뜨거운 패기, 50대의 여유로운 성숙함, 60대의 깊이 있는 지혜까지, 각 세대의 이야기가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교류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이렇듯 우리 교우회는 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행사들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함께 웃고 즐기며 쌓아 올린 소중한 인연들은 우리의 삶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우회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 삶의 활력소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더욱 풍성해진 우리 교우회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Event Ideas



개인별 취미 및 관심에 맞추어, 아래와 같은 Event Idea를 확보하고, 실효성이 큰 내용 부터 전체모임 혹은 소그룹모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회	운동	전문강좌
학자금 융자	Picnic	골프	건강
진학세미나	음악회	등산	법률
육아세미나	영화관람	낚시	세금,재정
컴퓨터교육	사진	테니스	부동산
취업세미나	맛집 탐방	사격	



행사계획 (2011년)

공 식 행 사	1월	정기총회 및 이사회
	2	이기수총장 방문 만찬모임
	3	70 그룹모임
	4	야유회 (가족, 유학생)
	5	총장배 Golf 대회
	6	5060 그룹모임
	7	상반기 결산 임시총회
	8	8090 그룹모임
	9	추계 야유회
	10	고연전
	11	-
	12월	송년회

동호회

골프모임

등산모임



우리 교우 모두 정들었던 도서관 전경

재무 불모지대의 동남부 교우회에 회계가 들어 오다

그간 친목회 수준의 교우회 활동이 체계적이고 정례화된 활동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었고, 이에 따라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다 급기야 재정 사고도 경험한 교우회는 안성호 회장시기에 이르러 본격적인 회계 개념으로 자금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에 따라 '교우회 분위기가 좀 Dry 하다' 라는 지적도 없지 않았지만,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향후 발전하는 교우회가 되기 위해 자금 관리의 체계화는 적절한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교우회의 수입은 교우회비 / 이사회비 / Donation 등으로 분류하고, 지출은 대항목 위주로 일단 진행하여 간결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재정 보고서가 완성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 의해 교우회 기금이 거의 \$1,500였던 것이 차기 회장인 임윤용 회장에게 이월 될 때는 \$7K 수준까지 안정적인 교우회 재정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미 동남부 교우회, 애틀랜타에서 미주 전역으로 웅비 하다

이제 친목회 수준의 교우회가 조직화되고 자금의 건정성이 확보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전체 교우회 (고려대학교 미주 총연합회: 미주 총연) 활동으로 연결되어 급기야 미주 총연 제 4차 전미주대회를 애틀랜타에서 진행하고 미동남부 교우회는 2014~2016년 미국 고려대학교 교우회를 대표 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후 애틀랜타 교우회는 미주 총연에서 비중 있는 역할과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여를 묵묵히 잘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미주교우 총연합회 제4차 전미주대회, 2014년 6월 28일

애틀랜타 교우회의 미 국내 위상 정립의 결실: 제 4차 전미주 대회

애틀랜타 교우회, 모범 지부 선정과 유재현 회장 (농경 62, 뉴욕)

2013년 어느 봄날, 서울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안 회장님, 축하 드립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귀 지부를 '모범 지부'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애틀랜타 교우회가 모범지부라는 영광스러운 결실을 맺게 된 배경에는, 제3기 미주교우 총연합회장 이셨던 유재현 회장님의 탁월한 지도 편달과 헌신적인 지원에 힘입었습니다. 유재현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뜨거운 열정과 격려는 우리 애틀랜타 교우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유 회장님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애틀랜타 미 동남부 교우회, 4대 미주 총연 교우회 (미국 대표 교우회)가 되다

안성호 회장의 체계적인 교우회 활동 및 왕성한 대외 활동에 힘 입어 2013년 봄의 '모범지부' 선정에 이어 동년 겨울, 김병철 모교 총장의 방문 등이 성사 되면서 애틀랜타 교우회의 높아진 위상이 미주 총연은 물론 한국 교우회까지 알려 지면서 급기야 미 동남부 교우회가 4대 미주 총연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애틀랜타 교우회는 이전의 교우회와는 차원이 다른 명실공히 확고한 미국 내 교우회로 발돋움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6월 28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된 대의원 총회에 미주 각 지역에서 방문한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지냈냐, 잘 지냈냐" 한 마디에 모든 그리움과 정겨움을 담았습니다. 워싱턴 교우회 일정을 마치고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호텔에 도착하신 주선회 교우회장님, 최상영 부회장님, 이명식 부회장님, 그리고 장광준 사무총장님의 지친 발걸음도 호텔 로비를 가득 메운 고대인들의 웃음과 따뜻한 공기로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미주교우 총연합회 제 4차 총회 및 전미주대회" 첫째날의 밤은 깊어 갔습니다.

둘째 날, 눈부신 햇살이 하루를 밝혔습니다. 미 동남부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확인하실 수 있는 애틀랜타 시티투어 팀과 전원의 풍광을 즐기시며 여유로이 골프를 즐기시는 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부터, 낯선 미국 땅에서의 정착기, 자식들과 손주들의 이야기와 노후 이야기까지....한낮의 태양이 점점 땅을 향해 가까워질 즈음, 전미주 대회 장소인 Suwanee에 위치한 Bear's Best Golf Club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고대교우회 高 大 校 友 會 報

The Korea University Alumni News

2014년 7월 17일 (목요일) 제528호

교우회 깃발 아래 하나로 뭉친 전미주대회

주신회 교우회장 미주 5개 지부 순방, 교우들 뜨거운 환대 이어져

미주 5개 지부 대표단이 참석한 제4차 전미주대회에 참여한 교우회장 미주 5개 지부 순방, 교우들 뜨거운 환대 이어져

커버스토리 - 교우회 미주지부연합 제4차 정기총회 및 전미주대회

주신회(회장) 교우회장이 지난 달 미주지역 5개 지부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주교우회장은 지난달 28일 (수)부터 미국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 애크런에 방문 등 5개 도시를 순방하며 각 지부 교우들과 친분을 돈독히 하고, 미주지역 교우들의 애환을 경청했다. 주교우회장은 순방 기간에 교우들의 애환을 경청했으며, 교우회와 학교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친분을 돈독히 했다. 주교우회장은 순방 기간에 교우들의 애환을 경청했으며, 교우회와 학교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친분을 돈독히 했다.

교우회 회장단은 지난달 27일 (금)부터 29일(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교우회 미주지부연합 제4차 정기총회 및 전미주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미주지역 교우들의 애환을 경청하고, 미주지역 교우들의 애환을 경청했다. 주교우회장은 순방 기간에 교우들의 애환을 경청했으며, 교우회와 학교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친분을 돈독히 했다.

미주지부연합 제4대 회장에 안성호 교우

(12일에서 13일) 교우회 회장단은 23일부터 미국 동부 지역 순방을 시작한다. 이번 순방은 교우들의 애환을 경청하고, 미주지역 교우들의 애환을 경청했다.

제4차 전미주대회

미주지부연합 제4차 정기총회 및 전미주대회는 27일 열린 총회에서는 안성호 교우회장이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안성호 교우회장이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안성호 교우회장이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커버스토리

미주지부연합 제4대 회장에 안성호 교우

(12일에서 13일) 교우회 회장단은 23일부터 미국 동부 지역 순방을 시작한다. 이번 순방은 교우들의 애환을 경청하고, 미주지역 교우들의 애환을 경청했다.

제4차 전미주대회

미주지부연합 제4차 정기총회 및 전미주대회는 27일 열린 총회에서는 안성호 교우회장이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안성호 교우회장이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커버스토리

미주지부연합 제4대 회장에 안성호 교우

(12일에서 13일) 교우회 회장단은 23일부터 미국 동부 지역 순방을 시작한다. 이번 순방은 교우들의 애환을 경청하고, 미주지역 교우들의 애환을 경청했다.

제4차 전미주대회

미주지부연합 제4차 정기총회 및 전미주대회는 27일 열린 총회에서는 안성호 교우회장이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안성호 교우회장이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커버스토리

미주지부연합 제4대 회장에 안성호 교우

(12일에서 13일) 교우회 회장단은 23일부터 미국 동부 지역 순방을 시작한다. 이번 순방은 교우들의 애환을 경청하고, 미주지역 교우들의 애환을 경청했다.

2014년 6월 28일 열린 미주총연합회 제4차 전미주대회 개최기사

조지아의 여름, 6월 말의 열기를 현악 4중주 연주에 씻어내며, 고려대학교 미주교우 총연합회회의 입장과 더불어 미 동남부교우회 이사장이신 이광언 선배님의 개회선언으로 전미주 대회의 막을 올렸습니다.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하는 미 동남부 교우회가 미주지부 연합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중심으로서 미주 지역 뿐만 아니라, 교우회와 모교 발전의 중심축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는 선언회 교우회장님의 격려 말씀이 새롭게 시작하는 제 4기 안성호 미주 총연합회장과 임원진들의 어깨에 놓여진 짐을 가볍게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 유재현 전 미주 교우 총연합회장님의 “이 넓고 큰 미주에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가슴 벅찬 일이고, 우리는 그 일을 이미 시작했고, 전진하고 있으므로, 높고 큰 마음으로 서로 돕고 위로하며, 감싸고 살아가는 고대인이 되도록 하자”는 응원 말씀은 우리의 가슴 속에 있던 열정에 불을 지펴 주셨습니다.

유재현 회장은 손수 총연합회를 드시고, 새로 미주 지부 연합회를 이끌어가는 중책을 맡은 안성호 신임 총연합회장 손에 건네시며, 뜨거운 포옹으로 30만 교우들의 축하를 대신하셨습니다.

총연합회기를 손에 든 신임 안성호 회장의 포부 발표

금번 총연 행사와 관련된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래와 같은 포부를 밝혔습니다.

- 1) 각 지역 교우회 간 교류와 협력 강화: 각 지역 교우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미주 전체 교우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2)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교우회 활동: 젊은 교우로부터 원로 교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 3) 모교와의 긴밀한 협력: 모교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4) 미주 사회에 기여하는 교우회: 미주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5)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우회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입니다.



미주교우총연합회 안성호 회장과 고려대학교 교우회 주선회 회장

위상 제고에 따른 연 이은 VIP의 방문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 애틀랜타 방문

2011년 2월 10일, 돌루스의 청담 식당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멀리 고국에서 날아온 반가운 손님,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님 일행을 맞이하는 환영 만찬 자리였습니다. 안성호 교우회장의 목소리에는 벅찬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이날 만찬에는 50여명의 교우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멀리 타국에서도 고려대학교의 이름 아래 하나 된 모습은 총장님께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에도 벅찬 감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이어진 교우들의 대화 속에는 고려대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애틀랜타 교우회의 발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이기수 총장님의 방문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애틀랜타 교우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소중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2월 11일, 첫 일정으로 Georgia Tech 학생들과의 호텔에서 따뜻한 조찬을 가졌습니다. 젊음의 열정과 패기 넘치는 학생들의 눈빛에서 한국 교육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쌀쌀한 겨울 아침 공기를 가르며 이기수 총장님의 발걸음이 University of Georgia로 향했습니다. 조지아의 자랑, 유서 깊은 조지아 대학교(UGA). 그곳에서 이기수 총장님은 먼 타국에서 학업에 매진하는 유학생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타지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총장님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고려대학교와 조지아 대학교,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두 명문 대학이 드디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기수 총장님과 최흥석 국제처장은 미래를 향한 협력을 약속하며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습니다. 학생과 교수 교류, 학점 인정, 공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 대학은 협력을 통해 더 큰 발전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이기수 총장님은 "고려대학교는 미국 북부 지역 대학과의 교류에 집중해 왔지만, 이제 남부 지역의 우수한 대학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것"이라며 벅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의 만남은 단순한 협약식을 넘어, 한국과 미국의 교육 교류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기수 총장께서 교우들과 만찬을 즐기고 있다.



이기수 총장께서 UGA 와 MOU체결

김병철 고려대학교 총장, 애틀랜타 교우회 방문

2013년 12월 8일, 애틀랜타 Bear's Best Golf Club 연회장은 마치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 축제 현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뜨거운 열기와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100여 명의 교우들과 가족들은 자랑스러운 호랑이 기상을 뽐내며, 멀리 한국에서 온 귀빈들을 맞이할 설렘으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 김병철 고려대학교 총장님께서 김린 의무부총장님, 한희철 의과대학장님과 함께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환한 미소를 머금은 총장님을 향해 교우들은 존경과 반가움을 담아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본격적인 송년회가 시작되자, 김병철 총장님은 마이크를 잡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고려대학교의 놀라운 발전상과 미래 비전을 전했습니다. 특히 세종시에 30만 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인 창조캠퍼스 소식은 교우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총장님은 "안암과 조치원에 이은 제3의 캠퍼스인 세종 창조캠퍼스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형 캠퍼스로 발돋움할 것입니다."라며 고려대학교의 밝은 미래를 확신했습니다. 총장님의 연설은 교우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주었고, 고려대학교의 끊임없는 발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김병철 총장님은 "민족고대 100년, 세계고대 1000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100여 년 전 민족의 대학으로 시작한 고려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받아, 후배들이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을 잊지 않고 자유, 정의, 진리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당부했습니다.

총장님의 연설이 끝나자, 교우들은 학교 시절 추억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애틀랜타의 밤은 고려대학교 교우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교우들의 눈빛 속에는 고려대학교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김병철 총장님께서 교우들과 “민족고대 백년, 세계고대 천년”의 술잔을 높이 드신다.

이명박(전) 대통령 애틀랜타 교우회 방문



김민희(물리 02)

이명박 (전)대통령은 2014년 9월 27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세계 CBMC 총회에서의 기조 연설에 앞서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애틀랜타에 머물며 동포 및 교우들과 만남을 가졌다.

세대도 공간도 직업도 뛰어넘는 그 이름! 고대!

“우리 후배님도 이리 와서 같이 얘기 나누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문장입니다. 푸른 잔디 밭에 놓여진 테이블을 중심으로 삼삼오오 모이신 선배님들 사이에서, 뒤편으로 멀찍이 떨어져 행사의 이모저모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던 저에게, 제 17대 대한민국 대통령이셨던, 이명박 선배님 (경영 61)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고려대학교라는 이름은 40년이 넘는 세월도 무상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고, 쉽게 만날 수 없는 대통령이라는 물리적 거리도 가깝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고대 교우이기에, 같은 고대이기에, 함께했던 고려대학교가 가슴에 있기에, 따뜻하게 그리고 살갑게 후배를 챙기시는 그 마음이 가능했습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내외분 애틀랜타 방문, River Club, Suwanee, 2014년 9월 25일

제 4대 고려대학교 미주 교우 총연합회 안성호 회장 (기계 78) 을 도와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저에게 고려대학교 교우이시며, 대한민국 전 대통령이신 이명박 선배님 내외분의 애틀랜타 방문은, 직임을 수행하던 가운데 나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한 달여 간의 준비과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니다. 행사 장소 선정과 프로그램 계획, 초대 인원과 행사 당일 식사 메뉴 등 하나부터 열까지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는 행사일까?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나? 누구와 함께 해야 하나? 어느 것 하나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마를 딱! 치게 만드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 우리 선배님이시지!”, 맞습니다. 대한민국 전 대통령 내외분의 방문 행사 계획을 세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저에게, “애틀랜타를 방문하시는 분은 고려대학교 선배님”이라고 발상의 전환을 이루니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선배님께서 좋아하시는 평화로운 전원 분위기, 선배님께서 즐겨 드시는 음식, 선배님께 소개 시켜 드리고 싶은 애틀랜타의 자연, 선배님께 소개 드리고 싶은 애틀랜타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렇게 행사는 계획되었습니다.

Suwanee시에 위치한 Georgia 최고의 골프 클럽인 River Club에서 점심부터 저녁까지 교우회 분들과 함께 선후배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남부 교우 16명 및 하금열 비서실장 (독문 69) 등 총 1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별도로 현지 경찰 11명, 경호원, 비서관 10명 등 총 21명이 옆방에서 함께 식사함)

3시간 3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으며, 대통령께서는 동남부 교우회가 잘 화합해서 미주에서 모범이 되는 교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첫 만남의 어색한 분위기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의 추억을 하나하나 꺼내며, 서로 다른 시간이었지만, 같은 공간에서 경험했던 일화를 나누며 그렇게 하루는 흘렀습니다.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도 가장 큰 이야깃거리는 고려대학교 교우회였습니다. 전, 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애틀랜타에 방문하신 첫 대통령이신 이명박 선배님은 교우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교우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그에 얹힌 당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며 분위기를 이고셨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우들이 미국에서 각 분야 주류 사회와 연계하고, 최선의 리더십을 발휘해 서로 돕고, 어려울 때 하나 되는 결속력을 보여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고려대학교 미주 교우 총연합회에서는 미국에 있는 교우에 대한 이명박 선배님의 응원과 관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오전부터 이어진 일정에 노곤할 법도 하신 데, 행사 후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두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에너지를 가슴에 안고 가셨습니다. 그 에너지는 바로 고대! 그 이름에서 나오는 하나됨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그 이름만으로 세대도 공간도 직업도 뛰어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우회원 확대 및 재정시스템 개선

임윤용 (사회 79)

텍사스에서 애틀랜타까지, 그리고 애틀랜타 교우회와의 운명적인 만남

1984년 12월 27일, 텍사스 휴스턴의 겨울은 예상보다 따뜻했습니다. 석유산업의 중심지답게 도시는 활기가 넘쳤지만, 나에게는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진기숙과 함께 휴스턴 대학교 사회학 석사과정에 입학한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유학 생활이었지만, 낯선 문화와 언어, 학업에 대한 부담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서로에게 의지하며, 텍사스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우리는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석사과정을 마치고 텍사스 대학교 박사과정에 진학했지만, 1989년 6월, 지형석(지흥구) 목사님(사회 63)의 권유로 조지아 주립대학교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조지아 주립대학교는 낯설었지만, 애틀랜타의 푸른 숲과 활기찬 한인 사회는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는 고려대학교 교우회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1990년 어느 날, 뷰포드의 한 건물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교우회 송년회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얼굴들과 어색한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따뜻한 정과 고려대학교라는 공통분모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2000년까지 학업과 강의에 집중하느라 교우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졸업 후 미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하면서 교우회 활동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재정 전문가로 변신, 그리고 고대 교우회의 중심으로

2000년부터, 나는 재정 전문가로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며 교우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연말 행사 2부 진행과 사회를 맡으며 교우들과 더욱 가까워졌고, 교우회에 대한 애정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2014년 6월, 안성호 회장님이 총연합회장에 취임하면서, 나는 애틀랜타 교우회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송휘석 선배님과 사모님의 격려와 안성호 회장님의 믿음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애틀랜타 교우회 회장으로서 나는 교우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애틀랜타 총연 행사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했으며, 애틀랜타 교우회를 더욱 체계적으로 조직화했습니다. 교회, 단체, 비즈니스에서 만난 의대 선배들을 포함한 새로운 멤버들을 영입했습니다. 또한 “재정결산표”를 도입하는 등 교우회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교우회 활동이 매우 보람 있고 자랑스럽습니다.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 애틀랜타 교우회 방문

염재호 총장님과 함께 빛나는 고대의 꿈

2015년 12월 3일,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애틀랜타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모교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님이셨습니다. 멀리 고국에서 날아온 총장님의 방문에, 애틀랜타 교우들의 가슴은 벅찬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염재호 총장님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단상에 올라 고려대학교의 눈부신 발전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듯, 학교의 크고 작은 변화들을 세심하게 설명 해 주셨습니다. 특히 세계 4대 대학 평가 기관 중 하나인 QS 평가에서 고려대학교가 세계 100위 안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총장님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깊은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힘찬 박수와 환호성이 연회장을 가득 메웠고, 교우들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총장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고려대학교의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단순히 한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이 될 것입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대학,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고려대학교의 미래입니다."

총장님의 말씀 하나하나에는 고려대학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우들은 총장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 벅찬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려대학교가 더욱 발전하여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우뚝 서는 그날을 함께 꿈꾸었습니다.

고려대학교를 향한 총장님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은 2017년 7월과 2018년 12월, 두 차례의 추가 방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매번 총장님은 학교의 발전상을 공유하고, 교우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애틀랜타에 반하다

애틀랜타의 따스한 햇살,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는 염재호 총장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완만한 언덕 위에 그림처럼 자리 잡은 집들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울창한 숲과 맑은 호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애틀랜타구나!" 염재호 총장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조지아 북쪽에 위치한 Montaluce Winery에서의 점심 식사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아름다운 포도밭이 끝없이 펼쳐진 풍경 속에서 맛본 와인과 음식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염 총장님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생활하시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라며 부러움을 표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염재호 총장님은 Lake Lanier를 방문했습니다. 드넓은 호수와 푸른 숲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렇게 큰 호수가 주거지역 인근에 있다니 놀랍습니다. 애틀랜타는 정말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연신 감탄하며 호수의 아름다움에 취했습니다.

염재호 총장님은 애틀랜타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푸른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 따뜻하고 친절な 사람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까지,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교우들과 함께 나눈 시간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환대와 진심 어린 마음은 염재호 총장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염재호 총장님의 애틀랜타 방문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려대학교의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였고, 애틀랜타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총장님의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은 멀리 타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3일 우리 교우회를 방문한 모교 염재호 총장님, 좌우에 한기대, 권오승, 손철영, 박병호 교우님 내외분

KU PRIDE CLUB 활성화 노력



장마리아 (간호 72)

꿈을 향한 뉴욕, 사랑을 나눈 애틀랜타

1977년, 애틀랜타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1회 졸업생이었던 저는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뉴욕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낯선 땅 미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간절히 바라던 간호사의 꿈을 이루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밤낮없이 공부하며 간호사 시험을 준비했고, 마침내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손에 쥐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뉴욕에서의 생활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높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환자들의 따뜻한 미소와 동료들의 격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며 환자들을 돌보는 동안, 저는 어느 새 미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애틀랜타로 이주했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새로운 터전에 동지를 틀면서도, 마음 한 켠에는 모교 고려대학교 교우들과의 소중한 인연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7년 1월, 애틀랜타 교우회 회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장으로서는 저는 교우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정기적으로 교우회 모임을 개최하고, 골프 대회, 등산, 송년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여 교우들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틀랜타 교우회 회장으로 봉사하며, 저는 교우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끈끈한 정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격려하는 교우회 분위기 속에서, 저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애틀랜타 교우회 이사로 활동하며, 후배 교우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 동안 저는 간호사로서, 그리고 교우회 회장으로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왔습니다. 낯선 땅에서 꿈을 향해 달려왔던 젊은 날의 열정은 여전히 제 가슴속에 뜨겁게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를 지탱해준 것은 가족과 동료, 그리고 교우들의 따뜻한 사랑과 응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제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 애틀랜타 교우회 방문

2017년 7월 20일,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님이 2015년에 이어 다시 한번 애틀랜타 교우회를 방문하여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염재호 총장의 두 번째 애틀랜타 방문으로, 2015년 12월에는 모교의 발전상을 공유하며 교우들에게 자부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모교에서 진행 중인 KU PRIDE CLUB을 소개하고 애틀랜타 교우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Sugarloaf Country Club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60여명의 많은 교우들이 참석해서 염재호 총장님 일행을 진심으로 환영했으며, 먼 길을 마다 않고 다시 찾아 주신 총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학교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KU PRIDE CLUB 소개

염재호 총장은 KU PRIDE CLUB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2015년 5월 출범한 KU PRIDE CLUB은 고려대학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월 만 원 이상의 기부로 참여할 수 있는 소액 정기기부 운동입니다. 전체 기부자 중 대부분은 고려대학교 교수, 교직원, 학부모이지만, 우리나라 인재 육성과 고등교육 발전을 바라는 일반인 기부자도 5% 가량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KU PRIDE CLUB은 고려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 장학금 지급, 학생 복지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 기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려대학교 발전에 힘을 보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마리아 회장이 염재호 총장에게 KU PRIDE CLUB모금액을 전달하고 있다.

미 동남부 교우회 조직화 및 시스템 구축



홍 윤 (경제 81)

홍 윤(경제 81) 이해숙(통계 83) 부부의 애틀랜타 정착

1997년 다니던 삼성전자에서 Florida주 Miami로 주재 발령을 받아 부임한 이래, 2013년 8월 애틀랜타로 우리 가족은 이사를 했습니다. 당시 고교 1학년이었던 막내를 위해 수소문 끝에 좋다는 Lambert High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흔히 말하는 소위 '읍내- Duluth' 까지 꽤 먼 거리에 사뭇 불편함을 느껴, 은둔 생활을 하던 중, 아는 지인으로부터 고려 대학교 교우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반가웠으나, Settle-Down이 잘 될 때까지 사실 외부 활동은 부담이 되어 관심을 끄기로 하고 사업에만 열중하던 중, 제 거래처였던 현대중공업 미주 본사에 계시던 선배님 (고승환 당시 전무, 영문 79)께서 2015년도 춘계 야유회에 이끌어 주시어 참석한 이래, 모교 동남부 교우회와 연을 맺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교우회 분위기는 내리사랑으로 선배님들의 후배 사랑이 그 어느 학교보다 따스하고 두터웠고, 후배들의 깃듯한 선배 존경 등 고대인이라면 어디서나 느끼는 '맛' 을 애틀랜타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와 고대 미동남부 교우회

우리 보금자리인 애틀랜타의 지리적 특성상, 한국의 우수 업체의 GA주 진출과 타 주 대비 상대적 저렴한 물가와 안전한 Security등의 매력 그리고 교통의 요지로 애틀랜타의 매력은 많은 교우가 정착하기에 좋은 환경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첫 교우회 활동인 2015년 춘계 야유회 이후 교우회 활동에서 느낀 첫 인상은 '경로당 교우회' 그 자체였습니다. 50학번대에서 10학번대까지의 폭넓은 교우 세대 스펙트럼을 자랑하며 주된 사업 없이 단순 친목 위주의 교우회 활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Active 교우 70~80명의 Power를 가진 조직임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지리적 이점 및 늘어나는 교우 규모에 따라, 모교 VIP의 방문도 자주 생기며, 한국을 방문하여 모교 및 교우회를 방문해도 애틀랜타 교우회의 높은 위상을 느낍니다. 우리 동남부 교우회는 향후 세대 교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30~40대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교우회 임원으로 활동

2016년, 당시 교우회 회장이신 임윤용 (사회 79) 선배로부터 교우회 임원진으로 함께 일하자는 연락을 받고 참여하여 2018년 장 마리아 (간호 72) 교우회장 재임 기간까지 4년간 교우회 임원진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남부 교우회의 경우 친목 위주의 모임이라 고정 정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년초의 신년 하례 회 및 정기 총회 / 정기 이사회 / 총장배 골프대회 / 춘계 야유회 / 고연전 / 송년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안을 짜며, 선물 등 준비물도 준비합니다.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저를 포함한 주위의 다른 임원진과의 돈독한 관계가 물 흐르듯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연말의 VIP 손님 맞이 및 년중의 모교 교우회 활동을 준비하며 진행하는 '분단위의 예상 시나리오' 작성 등 과거 다니던 직장생활의 경험을 최대한 기억해냅니다. 동선 체크, 적절한 차량의 준비는 많은 교우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 하였을 것이라 지금도 생각합니다. 무사히 VIP 행사가 끝납니다.

교우회 임원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수입/지출 및 모금 활동에 따른 회계 자료의 정리입니다. 저희 교우회의 주된 수입원은 1) 교우회비, 2) 행사비, 3) 교우들의 Donation, 4) 기타입니다. 이에 대한 각 교우 개인별 납부 관리 LOG와 Template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였고, 이를 근거로 Income Statement개념의 교우회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진행 하였으며 매월 Bank Statement와 Cross Check하는 이른바 '재정사고 방지 시스템'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임원 활동을 하며 아쉬웠던 점은 우리 교우회가 Local Community와의 Communication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우회 이외 활동에는 무관심 그리고 재정적 취약성 등을 느끼며, 이를 극복하는 교우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미주 총연과의 Communication도 중요함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넓기에 동서부 교우회와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미주 총연이라는 독특한 미국 교우회 구조를 갖고 있기에 우리 동남부 교우회를 알리고 미주 총연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북가주 교우회(San Francisco), 중부 교우회(Chicago)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우리 동남부 교우회가 Proactive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교우회장으로 활동

2019년 말, 미 동남부 교우회 이사진으로부터 2020~2021년 동남부 교우회장을 맡으면 좋겠다는 전언을 듣고, 이미 4년간 임원진으로 동남부 교우회에 십분 봉사하였음을 이유로 고사하였으나, 신임 이사장 오대기 (화공 67), 안성호 (기계 78) 및 임윤용 (사회 79)의 1) 80학번대로의 세대 교체 시급 (Chicago 총회에 참석 시, 이미 Chicago 교우회는 90~00학번들의 실무 참여를 보며 부러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2) 이미 4년간 경험한 동남부 교우회 임원 경험 Know-How의 적극 활용, 3) 신임 이사장께서 적극 지원 하겠다는 설득에 힘입어 수락했습니다. 제가 교우회장이 되었다고 이렇다 할 새로운 활동은 없었습니다. 위에 언급했던 매년 진행하는 고정 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차기 회장에게 교우회 회장직을 이양할 무렵, 그 악명 높은 Pandemic인 Covid-19 사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장은 오대기 (화공 67)에서 신임 이기철 (의학 60) 이사장으로 이취임이 이루어졌으나, 임원진은 계속 현직을 유지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본의 아니게 2년 추가 임기를 수행 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겪어본 교우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Stop되고 모이는 행사 자체가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우회의 특징인 만나서 정을 나누고 경조사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교우회는 Pandemic 체제로의 변환이 필요했고, 최소한의 임원진 모임과 경조사의 지원 방법도 경조사 참석에서 On-Line 경조사 대응으로 변경하는 등 나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 미 동남부 단체 카톡방'이 이때부터 운영되어 모든 교우의 대.소사를 나누고 주요 정보를 전파하는 등, 오늘날 없어서는 안될 교우회 소통의 장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넘어 2022년 가을부터 Pandemic 상황이 막을 내리고 교우회도 정기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2022년도 고연전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많은 교우분들이 그동안 자숙하였던 개인 여행이 Rush를 이루며 출석율이 저조한 교우회 행사가 시작되고 행사 결과도 초라함을 맛 보게 됩니다. 일례로 2022년 고연전에는 Game할 선수 구성원이 안 될 만큼 참석하여 대거 참석한 연대 측과 협의를 하는 등 체면을 구기는 일도 발생을 하였고 연말 송년회도 과거 참석 인원의 50% 정도의 참여율을 보이며 곽용식 (경영 81) 현재 교우회장이 취임하고 저는 일반 교우로 Fade-Out 합니다.

제 임원 시절은 교우회가 나름 안정적이고 소폭이나마 발전하는 모습을 경험하였다면, 제가 회장직을 맡은 4년간은 Pandemic상황으로 교우회가 침체기를 겪는 시기였고 '숨만 쉬다 다음 교우회장에게 인수인계가 최대 목표'였던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골이 깊었던 Pandemic이 지난 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교우들의 모습을 보며 나름 안도의 숨을 쉽니다. 함께 걱정 많이 하여 주신 주위 선후배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주 총연과 연계된 활동

고향인 대한민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여 고려대학교 미주 총연 동남부 교우회에 몸을 담고 있는 한, 미국 전체 교우회인 미주 총연과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절실히 느끼며, 미국 내 재미 교포 비중에 상응하는 고려대학교 지역교우회 능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례로 미국의 재미교포 중 애틀랜타교포의 위상만큼 고려대학교 미 동남부 교우회가 미주 총연 중의 위상을 확보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대 모교 Donation등 애틀랜타 교우회의 위상이 타 지역 교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게 되면서 향후 좀 더 분발하는 Program등 개발 등 보다 능력 있는 미 동남부 교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근 미래에 다가올 미 동남부 교우회 (애틀랜타)교우회의 제2차 총연 준비도 이제부터 하나하나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조직 구성, 재정확보, Mission Statement준비 등 만전을 기해 미리미리 챙겨 나가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향후 희망하는 활동 방향

지속적인 세대교체는 숙명입니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 우리 교우회도 세대 교체를 적절하게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교우회 주소록/ 년감 등이 지속적으로 Update 되도록 하고 학번대별 Communication 기회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한 교우회 지원도 일정 부분은 정례화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교우회의 Local Community와의 연계성 강화도 적극 모색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례로 고려대학은 한국에서 Top Class이자 세계 100위 안의 우수한 종합 대학입니다. 따라서 총장님이 방문하실 때, 애틀랜타 교민회와 협의 하에 세계적인 모교 총장께서 ATLATNA교민/학생에게 미래의 인재상을 한국어로 강연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야말로 미 동남부 교우회가 Local Community에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또한 현재 친목 위주의 교우회 활동에 더해 연간 또는 3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하는 교우회' 로의 변화도 한번쯤 고민해 볼 Timing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모교 해외 협력처와 본교 교우회와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우리 교우회 회장/임원진들께서 한국 방문 시 모교 해외 협력처와 교우회를 방문하여 애틀랜타교우회와 지속적이고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의 광용식 (경영 81) 교우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속 건승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훈 – 교육구국의 건학정신을 계승 발전시킨 자유, 정의, 진리의 3대 이념

1955년 개교 50주년을 계기로 구체화된 이 3대 이념은 인류공통의 이상인 인간적 "자유(LIBERTAS)"의 실현, 사회 속에 "정의(JUSTITIA)"의 실현, 학문연구에서의 "진리(VERITAS)" 탐구에 대한 넘치는 정열을 집약했다. 책 속에만 갇힌 죽은 지식인이 아닌 가슴이 뜨거운 행동하는 지성인, 고대인을 고대인답게 하는 고대의 영원한 가치이다.

POST Covid-19과 내실이 쌓여 흔들림 없는 교우회: 성숙기 (2023~2024년)

곽용식 (경영 81)

코로나의 그림자가 사라지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는 예외 없이, 교우회 활동에도 적지 않은 제약을 주었습니다. 2022년부터 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은 교우회 행사를 재개했지만, 여전히 대외 활동은 조심스러운 분위기였고, 참여 인원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송년회는 여러 교우회 활동 중, 가장 참석율이 가장 높은 행사였지만, 2022년말의 송년회는 코로나 사태의 그림자가 우리의 일상과 교우회 활동에 미친 긴 끝자락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2023년 코로나의 그림자가 거둬지고, 교우회 행사를 그리워했던 많은 교우들이 행사마다 열정적으로 참여하면서 교우회는 3년 만에 정상궤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배 골프대회를 비롯하여, 야유회, 고연전, 송년회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여 전 세계 한인 모임의 모범인 고대 교우회의 모습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임원진 구성

2023~2024년 이사회와 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는데 차기 회장 선출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김순홍 (62) 이사장, 안병철 (71) 부이사장, 안성호 (78) 이사회 총무로 막강 이사진이 구성되었고, 임원진도 곽용식 (81) 회장과 캐런장 (82) 수석부회장, 박규만 (82) 부회장, 박의진 (88) 부회장 등 총 10명의 대규모 임원진이 구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임원진에는 교우회에 오랜 기간동안 활동한 교우와 타주나 한국에서 최근에 온 교우들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신구의 조화를 갖추고 자연스럽게 다른 교우회를 벤치마킹할 수 있었고 교우회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위치 격상

동남부 교우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는 했지만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증서를 발행할 수 없었는데, 2023년에 IRS로부터 501(c)(3) 비영리단체로 승인을 받아 기부금과 후원금에 대한 세금공제 증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문이름도 새롭게 KU Alumni Foundation of the Southeastern USA Inc. (약어: KUAF)로 명명하였습니다. 이제 동남부 교우회는 교우 및 자녀에 장학금과 이웃지원 성금 등 다양한 상부상조의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민족 고대에서 글로벌 고대로 나아가는 모교를 바라보며, 미국에서 교우의 모습도 이에 맞게 발전되어야 하

는데 먼 이국 땅에서 동포와 지역사회를 향한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을 떨치는 교우회로 도약할 것이 기대됩니다.

이사회의 새로운 Mission

그 동안 교우회는 임원진이 교우회 활동을 주관해 왔습니다. 교우회는 55학번부터 2017학번까지의 다양한 연령이 참여하고 있는데 임원들의 구성을 생각하면 (81~99학번) 교우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교우회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 (회칙 3장 9조)의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를 공감하였고, 교우회 활동과 행사에 이사회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임원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실행하는 집행하는 기관으로, 이사회와 임원진의 역할을 분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고 학번 (58~82학번) 중심으로 되어 있던 이사회에 젊은 이사들을 영입하였고 (89~97학번),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변모한 이사회에서 논의한 첫번째 사안은 2023년 IRS 501(c)(3)로 승인됨에 따라 이사회에서 ‘후원회’를 구성하여 교우 및 자녀에 대한 장학금과 이웃지원 성금 등 다양한 상부상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안건은 그 동안 몇 차례 건의가 있었던 애틀랜타 교우회 50년사 기념 책자 발간에 대한 것이었는데 2024년 3월 정기 이사회에서 ‘역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장: 이광언(65), 부위원장 안성호(78)), 4월 임시이사회를 통해 관련 예산을 인준한 것입니다. 교우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중요사안 의결 및 특별예산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임원진을 이를 실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교우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다 균형을 갖추어 교우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남부 교우회의 위상

미국 동남부 지역은 계속 성장해 왔는데, 특히 한국 기업들의 동남부 지역에 대한 투자가 매우 활발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한인사회가 크게 성장해 왔으며, 교우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남부 교우회에는 조지아, 앨라배마, 플로리다,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등 7개 주가 속해 있는데, 이 지역에는 현대, 기아, SK, LG, 삼성, 금호 등 굴지의 대기업들과 많은 협력업체들이 위치함에 따라 한인들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애틀랜타 지역에는 20만명의 교민들이 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2023년 4월 광웅식 동남부 교우회장이 모교와 교우회 방문 중 승명호 교우회장으로부터 고려대 교우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향후 미주 동남부 교우회장은 당연직으로 교우회 부회장으로 위촉되었는데 한층 고양된 동남부 교우회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남부 교우회에는 주로 애틀랜타 지역의 교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플로리다 지부가 추가로 설립되었고, 앨라배마 지부도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주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우들을 중심으로 지부를 설립하면 교우회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교우회장, 총장 애틀랜타 내방

2024년 1월 승명호 교우회장과 김동원 고려대 총장이 함께 애틀랜타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동안 모교 총장과 교우회장이 애틀랜타 지역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두 분이 함께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신년회를 결들여 진행된 환영만찬에는 50여명의 교우들이 참석해 두 귀빈과 방문 일행을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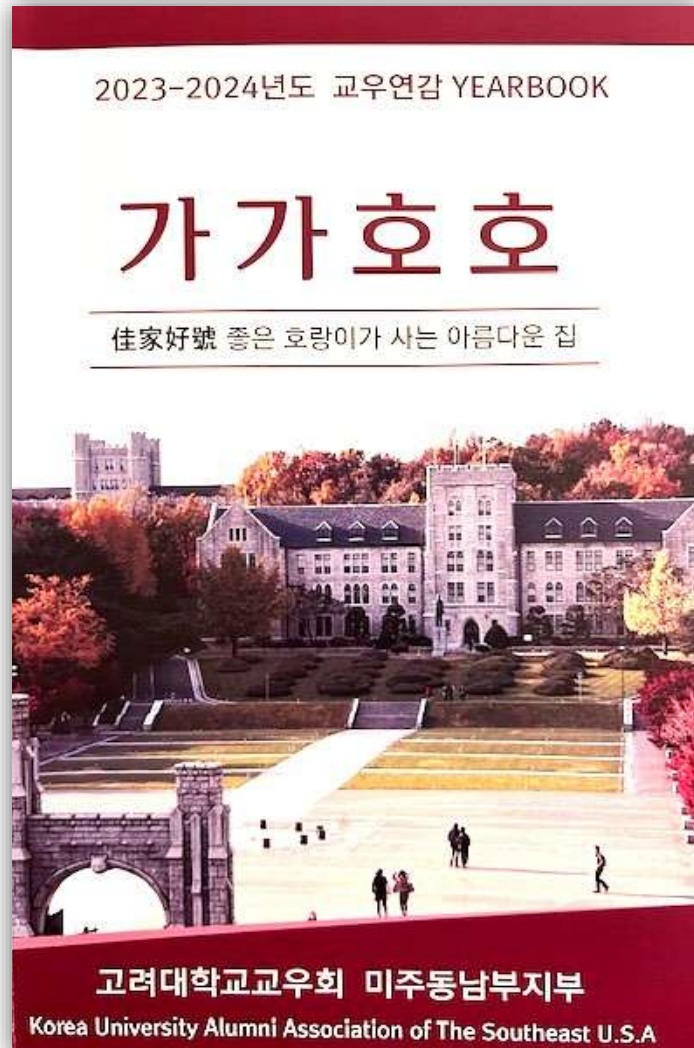
승명호 교우회장은 '교우들에게 힘이 되는 유익한 교우회', '모교와 하나되는 교우회'로 자리잡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왔고, 교우회관 리모델링이 완성되어 해외 교우들이 모교를 방문할 때 회의실과 접견실 대여 등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으며, '40만 교우시대'를 바라보는 교우회는 해외에 계신 교우님들의 네트워크를 정비해 '글로벌 교우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동원 총장은 도착 첫 날 이사회 임원들과 교우회장, 부회장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모교의 현재 위상과 향후 계획, 120주년 기념행사의 배경 등을 상세히 나누었고, 둘째 날 Emory 교수, Georgia Tech 유학생들과 조찬 모임을 갖고 고려대의 기상을 해외에서 적극 펼칠 것을 당부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이어 환영만찬에서는 민족의 고대에서 글로벌 고대로 성장하고 있는 발전상을 나누고 세계 대학 순위 30위의 장기 목표와 120주년 기념행사를 알리고 해외 교우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교우회 주요 활동

2023~2024년 교우회 활동을 준비하며 다양한 교우들의 의견을 청취해 왔고 이를 반영하여 많은 교우의 호응을 얻은 부분이 있는데, 첫번째는 카톡방을 통한 소통의 활성화였습니다. 대부분의 교우들이 익숙한 카톡방이었지만 개인 소식이나 지역행사를 소개하는 등 카톡방의 내용과 활용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교우회 행사 안내, 교우 소식, 새로운 교우 소개, 모교 소식 등 교우회와 연관된 내용에 집중하여 이를 알리고 홍보해 왔습니다. 새로운 교우가 올 때마다 카톡방에서 인사하고 환영하였으며, 행사를 진행할 때 마다 참석 신청을 받아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중요한 내용에는 의견을 묻는 기능도 활용하는 등 이제는 교우회 정식 소통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동남부 교우회는 격 년마다 교우록을 업데이트하여 나누어 왔는데, 2023~2024년 교우록을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교우록은 교우 연감 (yearbook)으로 확대하여 교우 명단과 연락처 외에도 교우회 주요 행사 사진, 소그룹 소개, 회칙 등을 추가했고, 교우들의 사업처를 소개하는 광고도 게재해서 교우 간 서로 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름도 교우록 또는 교우연감 이라는 조금 경직된 표현이라서 친근한 '가가호호 (佳家好虎)'로 명명하였는데 이는 '좋은 호랑이가 사는 아름다운 집'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가가호호의 교우 명단에는 애틀랜타 지회 외에도 플로리다 지회, 노스캐롤라이나 지회에 속하는 교우들의 명단도 구분하여 포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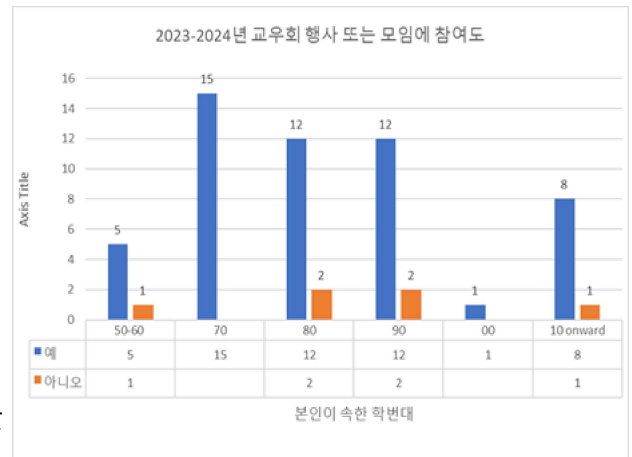


2023년 새로이 선보인 교우회 연감 가가호호는 다양한 교우회 활동을 화보와 함께 소개하고 동남부지부에 속한 조지아 지회, 플로리다 지회, 노스캐롤라이나 지회 교우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소요경비는 교우들의 사업체 광고 후원으로 조달한 기념비적인 자료이다.

부록 : 50년사 발간을 준비하며 시행한 교우 설문조사 및 결과

50년사 발간을 준비하며 전교우를 대상으로 시행한 교우 설문조사는 총 60명의 교우가 참여하였으며 학년 분포도는 50~60학년 10%, 70년대 25%, 80년대/90년대 각각 23.3%, 2000년대 이후 16.7%이며 성별로는 남성 76.7%, 여성 23.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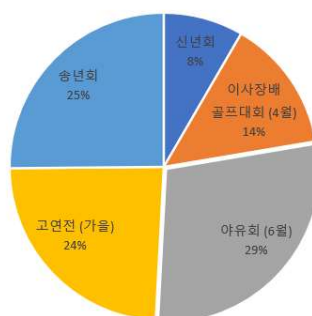
응답자 중에 교우회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 교우는 90%였으며, 학년별 참여도는 70학년 100%, 00학년 이후 90%, 80학년/90학년 86%, 50~60학년 83% 순이었다. 행사를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의 경우, 이유로는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행사 참여도



행사 호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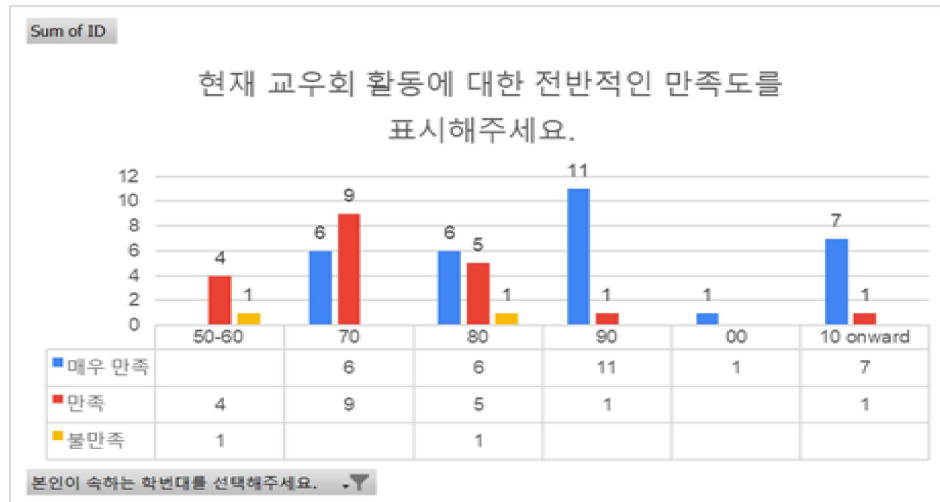
참여도가 가장 높았던 행사는 야유회 24%, 신년회/송년회 각각 22%, 고연전 21%, 이사장배 골프대회 11%로 나타났다. (참석자가 가장 많은 행사는 송년회인데 설문조사를 야유회에서 진행해서 야유회 참여자가 과 표집된 것으로 보인다.)

교우회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96%의 교우가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매우 만족 59%, 만족 37%), 만족도가 가장 높은 행사는 야유회 29%, 송년회 25%, 고연전 24%, 이사장배 골프대회 14%로, 신년회 8% 순이다. 학년대별 만족도는 90학년, 2000년 이후 학년, 70학년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반면 50~60학년 교우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II. 50년 발자취

설문조사

2023~2024년 교우회의 특징 중 하나가 활발한 소그룹 활동인데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교우는 52.5%로 참여율이 보였다. 소그룹 별로는 산악회 (18명), 골프회 (12명), 학과별 모임 (9명), 여우회 (7명), 사진반/학번별 모임 (각각 5명) 순이었다. 추가를 원하는 소그룹은 사격반 (3명)이 가장 많았고 Investment club, 교우회 자녀들과 함께하는 playdate, 바둑모임, 봉사활동 등이다.



그동안 교우회 소통 창구로는 78% 교우가 카카오톡을 선호했으며, 이메일 (12%), SNS (6%), 전화통화 (4%) 순이었다. (현재 교우회는 카카오톡을 주요 소통 창구를 사용해 왔으며 전화를 통해 행사의 참여를 독려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많은 교우들의 협조와 이해로 교우회 카톡방이 교우 동정, 교우회 행사 공지, 소그룹 활동, 교우회 소식 나눔 등으로 정리되어 교우회 공식 소통 창구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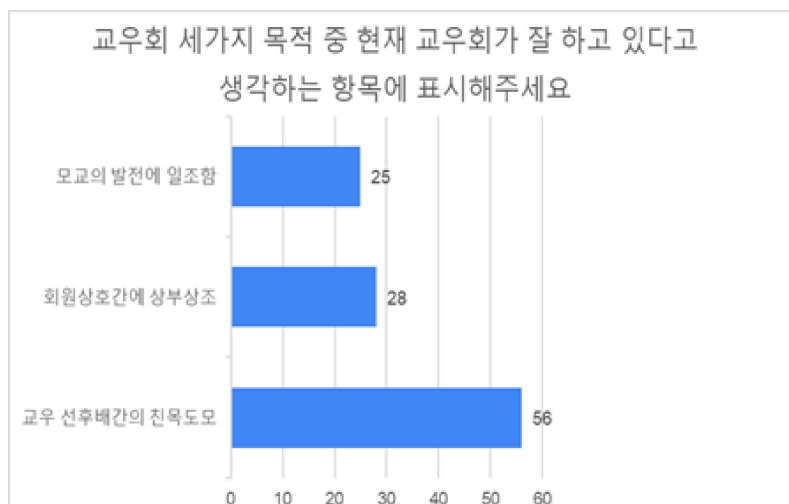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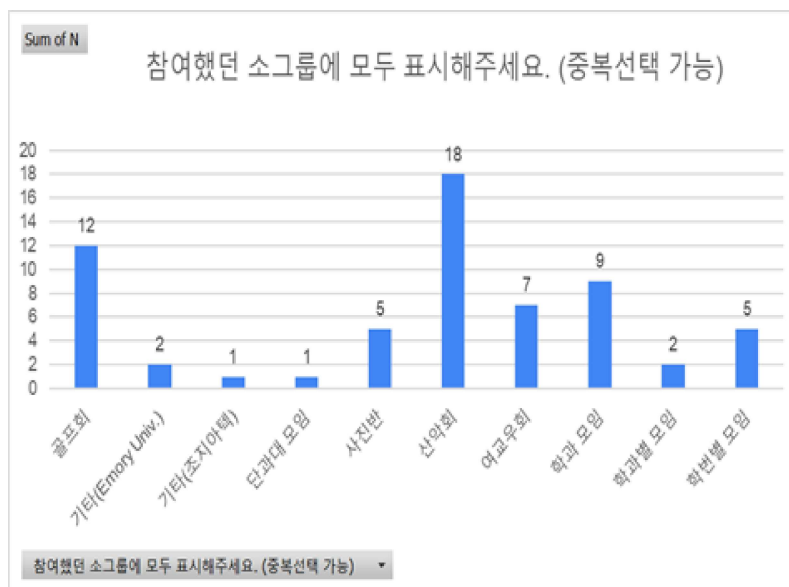
교우회의 3가지 목적 중에 (친목도모, 상부상조, 모교지원) 교우회가 가장 잘 하고 있는 것은 친목도모가 가장 높았고 (93%), 상부상조 (47%), 모교지원 (42%) 순이었으며, 향후 더 강화해야 할 부분도 친목도모 (62%), 상부상조 (45%), 모교지원 (32%) 순으로 친목도모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교우회 회비는 교우회비 (\$100/년), 이사회비 (\$100/년), 행사 참석비 (이사장배 골프, 송년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비 금액이 오랜 기간 동안 변화가 없어 일부 회비의 인상 필요성을 조사하였으나 적당하다가 월등히 많았으며 (79.7%), 적다 (13.5%), 많다 (6.8%) 순이었다.

코로나 이후 지속적인 물가 인상으로 행사 준비금이 예전보다 많이 증가하였으나 2023년 이후 많은 교우가 다

양한 후원금으로 지원해 주셔서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해 왔다. 따라서 회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교우들의 자발적 후원과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활발한 교우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우회 운영에 대한 제안 부분은 학년별 대표를 선출하여 학년별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활성화, 지역사회 봉사 활동 (장학사업 등), 젊은 후배 및 이사들의 참여도 제고, 신문과 방송을 통한 교우회 및 행사 홍보 등의 좋은 의견이 있었다.



II. 50년 발자취

플로리다, 앨라배마 교우회의 근황 및 인사말

플로리다주 교우회 회장 윤상근(경영 72)

존경하는 선후배 교우님들과 이 순간을 함께 하게 되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50년이라는 세월동안 이국 땅에서 안암골 호랑이 고려대의 뿌리를 내리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추억은 모두의 삶에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단순하게 숫자 50이 아니라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교우회를 지키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까지 온 애틀랜타 교우회 전현직 임원진과 이사님들께 무한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이보다 더 성숙하고 잘 할 수 있다는 후배님들께도 응원을 보냅니다.

플로리다 교우회는 교우님들이 한 도시에 집중적으로 거주를 안 하시고, 또한 지역이 멀리 퍼져있다 보니 (올랜도, 탬파베이, 잭슨빌, 마이애미, 게인즈빌 등) 다같이 모여서 행사를 진행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매년 송년과 신년하례 모임을 주관할때 1박2일로 스케줄을 만들어 골프와 교우회 모임을 동시에 하며 멀리서 오시는 교우님들에게 참여를 독려코자 교우회비로 숙박 지원을 일부 보조하며 안암의 언덕에서 같이 배웠던 추억을 나누며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플로리다주 올랜도로 은퇴하고 내려왔지만 처음에 이곳에 교우회가 없다는 것에 놀랐고 또 창립해서 운영해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끼지만 교우님들이 단순하게 개인이 아닌 민족고대라는 큰 울타리를 생각하고 비록 낯설고 어색하지만 젊은 날의 추억을 공유하고 즐기면 좋겠습니다. 본교 교우회와 범 동남부 교우회에서 아직은 작은 이곳 교우회이지만 더 신경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이곳 교우님들에게도 자존감이 더 생기고 뭉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앨라배마 교우회 회장 송운호 (경영 85)

현재 저희 앨라배마 주 교우회는 한 자릿수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의 모임이지만, 앞으로 교우회 모임을 성실히 갖고, 교우의 추가 모집에 힘쓰며 더 많은 교우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앨라배마 주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저희 교우회 대부분의 회원이 자동차 관련 사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교우들 간의 유대 강화와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 발전을 위하여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성장할 수 있는 교우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앨라배마의 주도인 몽고메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로, 민권운동의 중심지였으며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합니다. 또한 몽고메리는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하며, 친절함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저희 교우회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5.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교우회 회칙 및 재정 운용

<50년사 편찬위원회>

가. 교우회 회칙 운용 경과

우리 교우회 운영의 기틀이 되는 교우회 회칙은 1980년 12월 교우회 창립과 동시에 제정되었다. 창립 시 회장이었던 권오승(정외 55)교우의 주도로 본부 교우회 회칙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초기 회칙은 전문 9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제2조에서 교우회의 목적을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모교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 회칙 3조는 회원관련 조항으로 회원을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 정회원은 모교의 정규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명예회원은 모교와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자로서 회장단의 추천과 회원 과반수 이상을 찬성을 받은 자로 정하였다.

이하 4조는 회원들의 의사결정조직인 총회에 관해, 5조는 총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해 언급했으며, 6조는 집행부는 회장과 부회장 및 총무, 재무, 섭외간사를 둔다고 규정했으며 회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차 연임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8조에서는 교우회의 소요경비는 회원들의 정기회비(년 \$50)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고 하여 회원의 연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였다. 이후 교우회 회칙은 2023년까지 총 4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2001년 상반기 김종학 회장(독문 70)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1차개정은 본교 교우회 회칙을 많이 본 딴 전문 6장 19조의 전면 개정이었다. 이 개정 회칙에서는 회원을 종전의 정회원과 명예회원에서 새로이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세분화하였으며 모교 대학원 졸업자, 연구과정 수료자, 우석대학교 의과대학 및 부속 간호학교 졸업자에게도 정회원 자격을 부여했고 정회원의 배우자는 특별회원의 자격을 주었다. 그리고 이사회 제도를 새로 만들어 교우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토록 하였던 바, 이렇게 만들어진 이사회비는 이후 교우회의 재정조달에 한 몫을 담당하여 오고 있다.

2차와 3차 개정은 2011년과 2013년 안성호 회장 시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회장과 임원들의 임기를 종전의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중임을 허용한 것과 부회장수를 1명에서 1명이상으로 확대한 것 그리고 회원 및 배우자 타계 시 부의금을 \$300로 올린 것 등이다.

2023년 광용식 회장 시 종전의 6장 19조 체제에서 총 7장 31조 체제로 체제의 개선 및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4차 개정이 있었다. 동 개정에서는 종전 8조, 12조 등으로 분산, 규정 되어 있던 이사 및 이사회 관련 조항을 신설된 이사회 조항(제3장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 통합하여 규정하였고 이사수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종전 일정 범위내로 제한되어 있던 임원수를 회장의 판단 하에 늘릴 수 있도록 했고(제4조), 종전의 총장배 골프대회의 명칭을 이사장배 골프대회로 변경하였고(제15조제1항), 예산과 계리 조항(제6장 제20조- 제28조)을 신설, 세분화한 것 등이다.

<교우회 명칭에 대한 의견>

우리 교우회는 1980년 12월 회칙 제정시에는 “미국 동남부지역 고려대학교 교우회”라고 했으며, 2001년 4월 제 1차 회칙 개정시에는 “고려대학교 교우회 미주 동남부지부 (Korea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of the Southeastern U.S.A)”로 칭해왔다.

당초 우리 애틀랜타 교우회를 “고려대학교 교우회 미주 동남부지부”로 지칭한 것은 미국 동남부지역의 7개주 즉 플로리다, 노스·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앨라배마, 미시시피 및 조지아주 거주 교우들이 이들 7개주의 허브도시인 애틀랜타에 자리잡고 있는 교우회(애틀랜타 교우회)를 중심으로 모였으면 하는 의도였던 걸로 짐작된다. 그러나 그간 보아왔듯이 우리 애틀랜타 교우회가 실질적으로 여타 미동남부 6개주 교우회의 중추적,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지난 30~40년간을 돌아보면 우리 교우회의 모임(“회칙” 상은 “고려대학교 교우회 미동남부 지부” 모임)에 애틀랜타 교우가 아닌 여타 동남부의 6개주에 거주하는 교우가 참석한 경우는 아주 드물었고 잘해야 3,4년에 한두 명 그것도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테네시주나 노스캐롤라이나주 거주 교우에 그쳤다. 이들 교우의 경우에도 우리 교우모임에 참석 시에는 애틀랜타에서의 1박이 불가피하다. 만일 애틀랜타와 666마일 거리(1,066 km, 서울과 부산간 거리의 2.4배)에 있는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거주 교우가 우리 애틀랜타 교우회에 참석하는 경우의 교통소요시간을 보면 비행기를 이용해도 최소 2일, 자동차로 운전하면 운전시간만 왕복 4일이 소요 되는 것이다.

⇒ 지리적 여건 등으로 애틀랜타 교우모임에 참가가 어려운 여타 미동남부 6개주 교우들도 우리 애틀랜타 교우회의 일원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현행명칭 “고려대학교 교우회 미주 동남부지부”는 문제가 있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두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바

첫째는 현행 회칙을 개정하여 우리 교우회를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교우회”로 부르는 방법이며

둘째는 우리 교우회 명칭을 “고려대학교 미주 애틀랜타 동남부 교우회”로 부르는 방법이다.

사실 위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의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교우회”란 명칭은 간단명료하다는 장점이 있고,

둘째의 “고려대학교 미주 애틀랜타 동남부 교우회”란 명칭은 미주 동남부를 살리기 때문에 인근의 테네시주나 노스캐롤라이나 거주 교우들을 우리 교우회 일원으로 포용이 용이하다는 좋은 점이 있다고 하겠다.

⇒ 위 첫째 의견이 좋은지 둘째 의견이 좋은지 아니면 더 좋은 제 3의 의견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추후 우리 교우회 이사회나 총회에서 다시 논의되어 결정 할 사항으로 보인다.

* 부록 : 고려대학교 교우회 미주동남부지부 회칙

고려대학교 교우회 미주 동남부 지부 회칙

- 1980년 12월 제정
- 2001년 4월 개정
- 2011년 1월 개정
- 2013년 1월 개정
- 2023년 1월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고려대학교 애틀랜타 교우회의 공식 명칭은 “고려대학교 교우회 미주 동남부 지부” (영문표기: Korea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of the Southeastern U.S.A.)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교우회는 교우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상호간에 상부상조하며 모교의 발전에 일조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 본 교우회는 다음 회원으로 조직한다.

1) 정회원:

가) 모교 (전문부 포함) 졸업자

나) 모교 대학원 석사, 박사학위 수여자 및 연구과정 수료자

다) 우석대학교 의과대학 (경성여의전, 서울여자의대, 수도의대 포함) 및 부속 간호학교 졸업자

2) 준회원:

가) 모교 (전문부 포함)를 중퇴한 者 중 국내외 각 지부와 분회 또는 期, 科, 학년별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자

나) 모교 병설 보건전문대학 (전신포함) 졸업자

다) 서울 여의 전 및 수도의대 부속 간호 고등학교 졸업자

3) 특별회원:

가) 모교 재단법인 설립자, 이사 및 감사

나) 모교의 전. 현직 교직원

다) 교우회 회원의 배우자

라) 모교의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자

마)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된 자

제 2 장 임 원

제 4 조: 본 교우회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 부회장: 1명 이상, 총무: 1명, 감사: 2인 이내 * 필요시 회장이 임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 5 조: 본 교우회 회장과 임원은 “정회원” 이어야 하며 총회에서 각각 선임한다.

제 6 조: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와 이사는 겸할 수 있다.

제 7 조: 회장은 본 교우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통괄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협력한다.

제 8 조: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경리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3 장 이사회

제 9 조: 이사회는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및 이사로 구성하고, 본 교우회의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는 40인 이내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임명한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0 조: 이사장은 이사회를 총괄한다. 이사회는 이사 5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1 조: 이사회는 이사 8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4 장 회 의

제 12 조:

-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소집한다.
-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13 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 2) 회장 및 부회장 선임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기타 중요사항

제 14 조: 총회는 회원 2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